

ON

따뜻함(溫)을 주는 인하대병원
당신의 안전을 위해 365일 ON

FOR WINTER

vol.135



그해 겨울은 눈처럼 따뜻했네

새하얀 눈은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겨울 꽃'입니다. 나풀나풀 '첫눈'이 내리면 우리는 가까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마냥 신나고 설렙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어쩐지 더 포근하고, 왠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평평 내리는 눈을 보고 있으면 겨울 배경의 영화속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죠. 올해는 소복소복 눈이 쌓이면 어릴 때처럼 작은 눈사람을 만들고, 영화속 주인공처럼 쌓인 눈 위에 누워 특별하고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 봐요. 그렇게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드는 눈이 어른이 된 우리의 근심 걱정까지 덮어주면 좋겠습니다. 글 편집부

CONTENTS

2 **찰나의 계절** 그해 겨울은 눈처럼 따뜻했네

SPECIAL THEME, 부자 되세요!

- 6 SPECIAL THEME 01 돈이 좋지만
- 8 SPECIAL THEME 02 기본이지만 뻔하지 않은 부자 되는 노하우
- 12 SPECIAL THEME 03 상위 0.1% 부자들의 습관
- 16 SPECIAL THEME 04 경제금융 용어 사전

사람과 건강

- 20 건강 읽기 연령대별 산부인과 질환 체크 리스트
- 24 인화포커스 인화대병원 부정맥센터
- 30 영화와 인생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와 <제리 맥과이어>
- 34 계절밥상 겨울 별미 즐깁시다 꼬막 요리
- 36 콧노래 여행 광주·이천·여주 경강선 여행
- 42 공간 풍경 인화대병원 본관 로비 성탄트리

인하, 사람

- 44 인화가 만난 사람 인화대병원 정보보호팀
- 48 인하라운지 인화대병원 생명존중콘서트
- 50 인하이슈 방글라데시 의료봉사
- 52 톡톡 약물상담 생리 늦추는 약
- 53 인하미디어 언론에 비친 인화대병원
- 54 인하뉴스 인화대병원 소식
- 56 진료안내표

인화대병원보 2019년 겨울호(통권 제135호) 발행일 2019년 12월 20일 발행인 김영모
 발행처 인화대병원 홍보팀 기획·편집·사진·디자인 스튜디오100 (02-511-9369) 인쇄
 (주)한강문화 등록번호 인천마01031 인화대병원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신흥
 로 3가 7-206) 전화 032-890-2114 팩스 032-890-2998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부자(富者) 되세요!

누군가에는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막연하고,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무관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한낱 종이에 불과하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에서 우선순위의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는 일정 시간을 일하는 대가를 받아 저축을 하고, 풍요로운 훗날을 그림니다. 이번 호에서는 행여 인생의 무게일지도 모를 ‘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부자(富者) 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글 편집부



돈이 좋지만 글: 칼짓는정(精)

오래전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다. 작은 손바닥 위에 100원 짜리 동전 한 닢이 놓여 있었다. 사고 싶은 거 많고, 먹고 싶은 거 많은 어린아이는 은빛 영롱한 동전을 바라보며 한참 고민에 빠졌다. 동네 구멍가게로 향할지, 문방구로 향할지 행복에 겨운 고민의 갈래길에서 잠시 망설였다. 돈, 무엇이기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그토록 두근거리게 만들었을까.

꽤 최근까지도 돈은 내게 숫자나 종이 이상의 의미는 아니었다. 유난히 수에 약하고 계산에 흐린 성격도 돈을 대하는 가치관을 만드는 데 기여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어릴 적 읽은 찰스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 등장하는 지독한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같던, 살아오면서 만난 부자들의 모습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닐까.

학창 시절 친했던 친구는 알아주는 부잣집 딸이었다. 친구 집에 갈 적마다 궁궐처럼 으리으리한 규모에 잔뜩 주눅이 들곤 했다. 학교 운동장처럼 광활한 거실에 놓인 장식장에는 유럽의 어느 골목 오래된 골동품 상점에서 사왔을 법한 시계며 작은 종, 접시 등이 가득 들어 있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홈드레스를 입은 친구 엄마는 '우아함의 정석'이나 '부잣집 여인의 모습이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만 같았다.

재밌는 건 그 친구의 소비 태도였다. 가장 잘사는 부잣집 딸이던 그 친구가 가장 인색했다. 평범한 소시민의 딸이던 우리가 오히려 팡팡 돈을 더 잘 썼다. 친구들과 어울려 교내 매점, 학교 앞 분식집 등에서 싹쓸이 맛있는 것을 먹고 난 후 돈을 낼 때, 그 부잣집 친구는 여지없이 탄성을 부렸다. 한 두 번이야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지만, 계속 반복되면 곤란하다. 그런 모습을 자주 목격하며 차곡차곡 응어리를 마음에 담아두던 우리는 어느 날부터가 그 친구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살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의외로 제법 만났다. 그럴 때면 삼삼오오 모여 그 사람이 없을 때 쑥쑥덕덕 '뒷담화'를 했다. 그러면서 인정했다. "저렇게 안 쓰니까 부자가 된 거야."

운이 없던 걸까. 그간 만나본 부자들에게서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모습은 별로 찾아보지 못했다. 모두 스크루지 영감 처럼 돈에 지독했다. '부자들은 왜 스크루지처럼 굴까.' 이 사실이 내게는 참 기묘하게 느껴졌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씹씹이에 인색하고, 돈에 집착하며, 돈에 욕심을 부리는

이들과는 다르게 살고 싶었다. 그 부자들의 모습은 결코 근사하지 않고 행복해보이지 않기에 더욱 그랬다. 그들은 내게 '탐욕'이라는 말과 같았다.

그래서 돈에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 돈에 집착하는 모습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에서 멀어지는 것이며, '함께'가 아닌 철저하게 '혼자'의 삶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돈은 그런 것이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마는. 그렇다고 돈과 무관하게 살지는 않았다. 나는 결코 돈을 밝히는 사람도, 돈에 인색한 사람도 아니라는 듯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며 돈을 아끼는 법을 모른 채 살아왔다. 돈에 무심한 듯 굴었지만 그 절대적인 힘과 필요성까지 모르진 않았다. 돈이 많으면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일에 제약이 없다. 돌이켜 보면 먹고 노는 소비 활동에 게으름을 피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 따뜻한 밥 한 끼,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누군가에게 선뜻 주머니를 털어줄 수 있어야 했다. 풍족하지 않은 통장 잔고 탓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며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을 깊이 공감했다.

사실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돈 쓰는 재미는 또 무엇에 비할까. 모르긴 해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이제는 돈에 대해 좀 솔직해져야 할 것 같다. 나도 사실 돈이 좋고, 돈을 벌려고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 일을 한다고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인심을 실천하려면, 나와 내 가족과 가까운 이들에게 돈이 필요한 언젠가를 위해, 더 나아가 추운 겨울 차가운 방에서 지내야 하는 이웃이나 한강둔치의 어느 쓰레기통을 뒤져 끼니를 해결하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려면 내가 우선할 것은 돈을 소중하게 대하고 아끼는 태도일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의 가치가 아닌, 돈을 대하는 태도일지 모른다. 여전히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지만, 삶에 꼭 필요한 도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돈벼락을 맞지 않는 이상 이번 생에는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언젠가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다. 결코 인색하지 않은, 나눌 줄 알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가진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기본이지만 뻔하지 않은

부자 되는 노하우

부자가 되려면 돈을 잘 모아야 한다.

그다음 종잣돈을 적절한 곳에 투자해 조금씩 불려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부자 되는 지름길이다. 글 김민정

INVEST

부자는 풍돈을 홀대하지 않는다. 아무리 적은 액수의 돈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조금씩 모아 결국엔 목돈을 손에 쥘다. 그렇다면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먼저 저축에 관심을 갖고, 저축 상품을 고르는 일부러 신경 쓴다.

1 예금 금리, 반드시 비교하기

부자는 풍돈을 홀대하지 않는다. 아무리 적은 액수의 돈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조금씩 모아 결국엔 목돈을 손에 쥘다. 그렇다면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먼저 저축에 관심을 갖고, 저축 상품을 고르는 일부러 신경 쓴다. 일반 은행과 저축은행, 인터넷 은행 등 여러 은행의 예금 금리를 비교한 뒤 가장 이자율 높은 은행의 상품을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후자는 주거용 은행이 최고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믿지만, 아닐 수 있으니 다른 은행과 비교한 뒤 결정한다. 같은 저축 상품이라도 기본 예금이율과 급여 이체 같은 일정 조건을 갖췄을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예금이율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한다. 또한 대개 제1금융권인 일반 은행은 이자 계산 방식이 단리인데,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은 이자 계산 방식이 복리다.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단리와 크게 차이 난다. 장기 저축을 할 때는 단리보다 복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2 세제 혜택 있는 금융 상품 고르기

전문가들은 부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 상품을 선택하는 것 못지않게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금융 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은 청약저축과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청약저축은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액은 소득별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니 잘 살핀다. 또한 연금저축(연금펀드·보험·신탁)은 연간 400만원까지, IRP는 추가로 300만원까지 모두 7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청약저축이나 연금저축이 없는 사람이 예금 상품으로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추천할 만하다. 청약저축이나 연금저축은 저축 기능은 물론이고 청약 통장을 활용한 내 집 마련, 연금을 활용한 노후 대비에도 유용하다.

3 인터넷 은행 활용하기

인터넷과 모바일이 익숙한 젊은 층은 굳이 지점에 가지 않아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을 선호한다. 우리나라에 인터넷 은행이 처음 나타난 것은 지난 2017년이다. 2017년 4월 국내 1호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www.kbanknow.com)가 출범하고, 같은 해 7월 국내 2호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www.kakaobank.com)가 뒤를 이었다. 인터넷 은행은 오프라인 지점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업무 대부분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처리한다. 이 덕분에 기존 은행보다 예금 금리는 높게, 대출 금리는 낮게 선보일 수 있다.

지난 12월 10일 카카오뱅크는 저금통에 잔돈을 모으는 듯한 재미를 주는 소액 저축 상품 '저금통'을 출시해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카카오뱅크 '저금통'을 개설하고 '동전 모으기'를 선택하면 월~금요일까지 매일 자정 기준으로 고객이 선택한 카카오뱅크 입출금 계좌 내 1~999원의 잔돈이 다음 날 저금통으로 자동 이체되는 방식이다. 카카오뱅크의 '저금통' 덕분에 인터넷 은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 이와 맞물려 정부는 12월 중으로 국내 3호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인터넷 은행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그것을 얼마나 똑똑하게 활용할지는 우리 몫이다.

4 펀드 입문자라면 인덱스펀드 눈여겨보기

저축 상품이 아닌 투자 상품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펀드에 주목하자. 펀드는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소액의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 뒤 수익 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금융 상품이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직접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펀드 입문자라면 여러 펀드 중 인덱스펀드를 눈여겨보면 좋다. 인덱스펀드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좇는 펀드다. 주식 시장의 모든 주식을 시가총액 비중에 맞춰 사두면 시장 평균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는 대표 주가지수인 코스피 등의 수익률을 따라가기 때문에 급락할 위험이 적다. 게다가 3년 이상 유지하면 추가로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단기가 아닌 장기로 투자하려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인덱스펀드를 고를 때는 투자사의 운용 철학과 펀드 규모를 살핀다. 또한 오랫동안 살아남은 펀드인지 알아보고, 보수료 등 투자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지 확인한다.

5 주식,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기

최근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겁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은 미국이나 중국 등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불안정한데 반해, 미국 주식 시장은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1982년 이후 미국 주식은 연 환산 복리 수익률 기준으로 10.0%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수익을 기록할 확률 또한 78.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사람에게 미국 주식이 투자 대상으로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미국 주식 시장이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 전망한다. 따라서 저축 상품이나 펀드가 아닌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미국 주식 투자에 관심 가질 만하다.

단, 주식 투자가 처음이라면 주식 투자로 손실 입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가 하락 위험을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미국 주식 시장이 세계 그 어느 주식 시장보다 안정적이라 해도 주식 시장은 주식 시장일 뿐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전체 자산에서 예금, 펀드 및 주식의 비중을 적정하게 나눠 관리한다. 또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때는 세금을 신경 쓴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해외 주식은 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단,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된다.

미국 주식 시장이 세계 그 어느 주식 시장보다 안정적이라 해도 주식 시장은 주식 시장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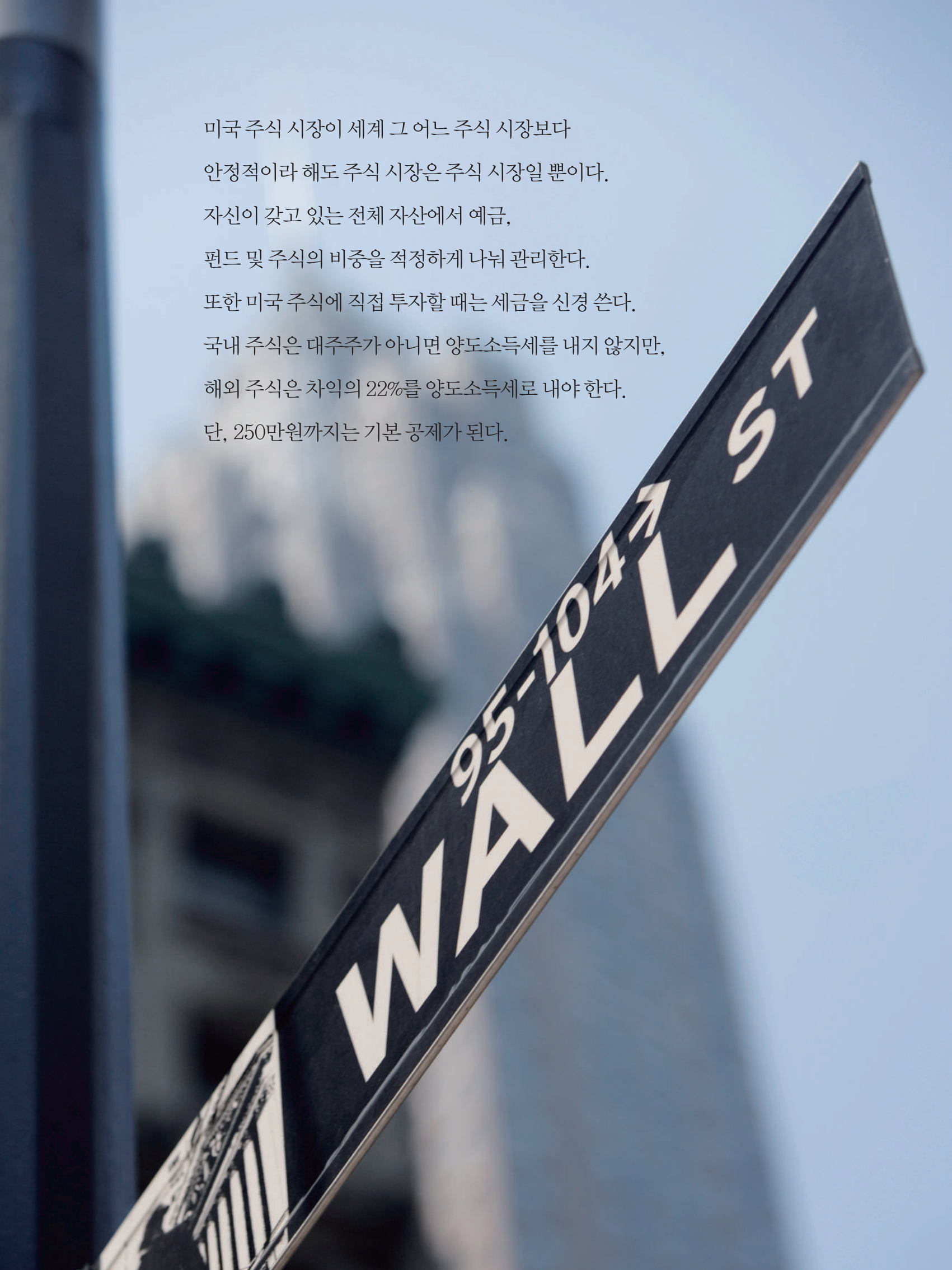
자신이 갖고 있는 전체 자산에서 예금, 펀드 및 주식의 비중을 적정하게 나눠 관리한다.

또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때는 세금을 신경 쓴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해외 주식은 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단,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된다.



상위 0.1% 부자들의 습관 아낄 수 있으면 아껴라

세계에 내로라하는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공통점은 평소에 근검절약을 실천하는 것이다. 남들보다 돈이 많아도 겸손한 자세로 알뜰하게 살아가는 부자들의 습관. 어떤 습관인지 그들의 실제 모습을 찾아봤다. 글 유미지

투자의 귀재이자 기부의 왕, 워런 버핏

20세기 최고의 투자가로 불리는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은 주식 투자로 큰 부를 축적했다. 2019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그의 자산이 870억 달러(한화 96조 9441억 원)로 세계 3위 부자라고 발표했다. 버핏은 전문학적 액수의 자산을 가졌지만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자신이 타고 자란 미국 중북부의 중소도시 오마하에 60년째 살고 있는데, 구매 당시 한화 약 3700만 원이던 이 집은 방 5개짜리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주택으로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버핏의 집인지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평범하다. 지난 2014년 주주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는 “내 삶에 집이 6채, 8채 있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이보다 더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침 식사는 맥도널드 맥모닝으로 대신하고, 그 흔한 스마트폰도 쓰지 않지만 기부할 땐 그 누구보다 통 큰 면모를 보인다. 지난 2006년부터 그는 자신의 주식 85%를 기부해왔다. “내 주식의 1%를 나를 위해 쓴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진 않다. 하지만 나머지 99%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절약 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기업을 만든다, 이케아 창업자

잉그바르 캄프라드

가구 업계에서 ‘공룡’이라 불리는 스웨덴 가구 브랜드 이케아(IKEA)의 창업자 잉그바르 캄프라드(Ingvar Kamprad)는 330억 달러(37조 원)를 지닌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의 아주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자란 그는 풍족하지 못한 가정환경 탓에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의 애마는 20년을 타고 다닌 1993년식 볼보 240 스테이션 왜건이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마저도 몰지 않고 시내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자택에서 이케아의 실속형 가구를 사용했으며, 30년 이상 같은 의자를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에서 항상 이면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푸드코트에서 고객과 함께 식사를 했다. 출장 때는 이코노믹 좌석만을 고집했으며 호텔 객실에 비치된 유료 생수가 비싸다며 주변 편의점에서 물을 사다 마셨다. 티백은 여러 번 우려서, 일회용 접시도 씻어서 다시 사용했다. 그의 이런 자린고비 같은 면모 덕분에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케아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스크루지 영감에서 기부 왕이 된 **척 피니**

미국 자선단체 애틀레틱 필랜트로피즈를 설립해 현재 의장이자 전 DFS 면세점 공동설립자 척 피니(Chuck Feeney)는 타고난 사업가다. 10대 때 크리스마스카드와 우산 세일즈, 골프장 캐디 등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용돈을 마련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한국전쟁에서 미국 공군으로 복무한 경험을 살려 미 군함에서 면세 술을 팔며 돈을 모았다. 본격적으로 억만장자가 된 것은 대학 친구들과 설립한 DFS가 성공한 덕분에 1988년에는 13억 달러(한화 약 1조 5,000억 원)의 자산을 달성해 <포브스>가 발표한 부자 순위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그는 모임에서 먼저 일어날 만큼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현대판 스크루지로 불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이 깜짝 놀랄 반전이 일어났다. 1997년 척 피니가 설립한 DFS의 일부 지분을 '루이뷔통 모에 에네시(LVMH)'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 감사에게 '비밀 회계 장부'를 들키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가 재산을 빼돌렸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10년 넘게 자산의 99%를 무기명으로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척 피니가 1980년대부터 35년간 사회에 기부한 돈은 약 9조5천억 원으로 얼마 전 마지막 재산인 약 80억 원을 모교인 코넬대학교에 내놓으며 총 자산 중 99%를 기부한 사람이 되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이 그를 롤모델 삼고 영웅으로 인정할 만하다.

실리콘 밸리의 개척자,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는 2010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이자 약 790억 달러(한화 96조 원)를 지닌 최연소 억만장자다. 하버드대 학생들의 얼굴이나 보려고 만들었던 페이스북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일구고 거대한 부를 얻었지만 정작 그의 삶은 부자가 되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다. 그는 늘 회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4년에 진행된 페이스북 사용자들과 나눈 온라인 질의응답 행사에서 '매일 똑같은 셔츠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내 인생에 결정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싶다. 특히 오늘 무엇을 입을지 신경 쓸 시간에 내 주변을 돌보는 것이 낫다'고 대답했다. 티셔츠와 청바지 말고도 그는 한화 3천만 원대의 폭스바겐 '골프'를 타는데 그것마저 오토매틱보다 더 저렴한 매뉴얼(수동)이라고 한다. 그는 결혼식도 일반 사람보다 더 조촐하게 치렀다. 청첩장도 만들지 않고 집 뒤뜰에서 고작 90여 명의 하객만 초청해 결혼식을 치렀다. 지난 2015년 12월, 딸 맥스를 출산함과 동시에 자신이 가진 페이스북 주식 99%를 살아 있는 동안 평생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를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낭비를 줄여서 옷을 만든다, 자라 회장 **아만시오 오르테가**

패스트패션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자라의 창업자 아만시오 오르테가(Amancio Ortega)는 <포브스>의 2019 세계 부호 순위 6위에 올랐다. 오르테가는 가난한 가정환경 탓에 일찍이 학교를 그만두고 양품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15년간 양품점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단 구입부터 의상 제작 등을 직접 진행하고 유통함으로써 다른 가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옷을 판매했다. 이를 발판으로 '자라'라는 브랜드를 설립해 크게 성공했다. 그가 가진 자산은 627억 달러(한화 약 86조 7000억 원)로 스페인 GDP의 5%를 차지할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되었지만 공식석상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며, 계속해서 중산층의 마인드로 살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CEO가 지니는 특권도 과감히 내려놓았다. 자신만의 사무실도 두지 않은 채 현장 곳곳에 작업용 테이블을 놓고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업무를 본다. 형식보다는 실속을 중시해 항상 흰 셔츠와 회색 팬츠, 네이비 컬러 재킷을 입고 다니는 그는 의류를 제작하는 비용 이외에 들어가는 요소, 즉 광고비 등을 쓰지 않는다. 광고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고객인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11년 7월, 75세가 되면서 일선에서 물러났는데, 화려한 퇴임식이 아닌 그저 짧은 메모 한 장으로 퇴임사를 대신했다고 전해진다.

지금 꼭 알아야 할

경제·금융 용어 사전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엇보다 경제·금융 상식을 살피는 것이 먼저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지금 꼭 알아야 할 경제·금융 용어를 소개한다. 글 김민정

FINANCE

디플레이션(Deflation)

세계 3대 신용 평가기관인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2월 3일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핵심 요인으로 디플레이션을 꼽았다. S&P 아태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 손 로치가 S&P 나이스신용평가 공동 미디어간담회에서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재정 지출 확대에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금리는 더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특히 경기 하강 국면에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산업 생산 감소와 실업 증가로 이어져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전문가 중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같이 디플레이션을 동반한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지표로, 우리나라 국민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나타낸다. 이 값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 가계, 기업, 정부 같은 경제 주체가 계속 움츠러든다는 의미다. 지난 12월 3일 한국은행은 2019년 3분기 GDP 디플레이터는 -1.6%고, GDP 디플레이터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GDP 디플레이터 -1.6%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은행은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체감 경기는 빠르게 식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GDP 디플레이터가 4분기 즉, 1년 연속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이션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말한다.

싱크로나이즈드 슬로다운(Synchronized Slowdown)

싱크로나이즈드 슬로다운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적 경기 하강 국면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 ‘동반 둔화’라는 뜻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1월 15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세계 경제가 싱크로나이즈드 슬로다운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제시한 IMF는 올해 성장 전망을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저성장의 특징은 제조업과 세계 무역에서 나타나는 급격하고 광범위한 둔화”라고 했다. 전 세계 경제가 동반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新)남방 국가

신남방 국가는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 동남아 최대 시장으로 손꼽히는 인도네시아, 금융 산업 개방 초기인 캄보디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포함한 11개국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9일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수준을 높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면서 등장한 용어다.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신남방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인데, 이는 경제·금융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평화·외교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울러 큰 기대를 모은다.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은 기초 자산에 속하는 금리, 원자재, 환율 등의 가격에 연동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다.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일정 수익을 얻게 설계한 상품인데 가격에 큰 변동이 없으면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받지만, 미리 정한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 원금 전액을 손실 입을 위험이 따른다. 2019년 봄에 대규모 투자 손실을 빚어 사회적 이슈가 된 파생결합상품(DLS·DLF)을 비롯해 추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펀드(ETN) 등이 이에 속한다. 파생결합증권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던 최근 몇 년 사이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불완전 판매가 늘면서 대규모 투자 손실을 빚었다.

디지털 화폐 DCEP; Digital Currency Electric Payments

디지털 화폐는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다. 얼마 전 국제결제은행(BIS)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디지털 화폐 혁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대가 우리를 추월할 것"이라고 말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페이스북이 민간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 페이스북이 주도하던 디지털 화폐 시장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까지 가세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 중 처음으로 CBDC 개발을 공식화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은 민간 업계의 효율적 범유럽 결제 시스템 개발이 부족하면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처음 크리스마스의 동심童心 찾기

아직 산타의 존재를 믿던 시절, 성탄 전날이면 트리에 커다란 양말을 걸어두고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다리며 잠들던 밤을 기억하나요? 산타클로스가 실은 부모님이라는 걸 오래 전에 알아차린 채 어른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젊은 산타클로스가 되어 부모님의 양말 속에 작은 선물을 넣어볼까요. 우리가 올 한 해도 무사히 지난 건 여전히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고단한 마음을 보듬는 부모님의 온기 덕분이니까요. 당연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늘 옆을 지키는 그분들에게 뜻밖의 선물로 크리스마스의 추억과 감동을 전해 봐요. 크리스마스니까요.

글 편집부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여성의 시간은 시나브로 흐른다

연령대별 산부인과 질환 체크 리스트

여성은 가임기 이전, 가임기, 가임기 이후에 걸쳐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산부인과를 멀리해선 안 되는 이유다. 10~60대까지 생애주기별로 체크할 여성 질환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글 유미지 사진 스튜디오100 DB 도움말 이방현(인하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under 12 years old 성조숙증

성조숙증이란 여아만 8세 이하, 남아만 9세 이하에 사춘기 징후가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또래보다 일찍 2차 성징이 나타나면 성장판이 닫혀 키가 자라지 않고, 너무 이른 나이에 사춘기를 겪으면 아이가 자신의 신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적인 문제 또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여자아이는 성인이 된 후 조기 폐경, 유방암, 자궁암 등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성조숙증으로 진료를 받은 소아, 청소년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2014년 7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43% 증가한 수치다. 성조숙증의 발생 원인은 서구화된 식습관에 따른 소아비만 증가와 영양 과잉,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호르몬 증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꼽힌다. 또한 지방세포에서 성조숙증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특별한 원인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성조숙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녀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진단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12~19 years old 생리불순, 기능성 자궁출혈, 원발성 월경통

대부분의 여성은 11~14세에 초경을 경험한다. 처음 생리 때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일시적 출혈이나 월경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거나 외모에 관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지속적인 월경 이상 증세를 겪기도 한다. 어릴 때 성조숙증을 염려해 비만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썼다면 청소년기에는 저체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초경 직후 발생하는 생리통은 자궁근육이 수축해서 생기는 원발성 월경통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인하대병원 산부인과 이방현 교수는 “원발성 월경통은 예방이 되지 않는다. 증상이 반복되거나 심하면 산부인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고 필요한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35 years old 월경전증후군, 골반염, 자궁내막증

규칙적인 생리를 하게 되는 이 시기 여성에게는 월경전증후군이나 골반염, 자궁내막증 등의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PMS라 불리는 ‘월경전증후군’은 월경 약 7일 전부터 가슴 통증, 아랫배 통증을 비롯해 감정 기복, 우울한 기분, 심한 분노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가임기 여성의 약 80%가 경험하며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생리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와 연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방현 교수는 “소금이 많이 함유된 음식, 카페인, 음주는 월경전증후군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월경전증후군을 가진 환자라면 소금, 카페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보라”고 조언했다. 골반염도 이 시기 가임기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다. 골반염은 자궁 내막, 나팔관, 복강 등 골반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성병 균에 감염되면 발생하지만 일반 세균 감염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골반염을 예방하려면 평소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아랫배가 아프고 생식기에서 불쾌한 냄새와 분비물이 나온다면, 열이 나거나 소변을 볼 때마다 아프다면 빨리 산부인과를 찾아 진단을 받는다. 성관계 때 콘돔을 사용하면 성병 균의 전파를 막아 골반염을 예방할 수 있다. 자궁 안에 있어야 할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밖 복강 내에 존재하는 자궁내막증은 가임기 여성의 10~15%에서 나타나는 흔한 질환이다. 이 교수는 “자궁내막증은 예방이 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면 조기 진단할 수 있다. 자궁내막증(난소의 혹) 역시 골반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궁내막증은 일반적으로 아랫배 통증을 동반하므로 생리통이 점차 심해진다면 부인과 진료를 받고 치료해야 한다.

35~50 years old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35~40세 여성은 자궁경부암과 난소암, 자궁내막암 등 여성암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특히 자궁경부암은 우리나라 여성 암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암검사를 통해 암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진단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검사를 받으면 좋다.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을 막는 백신이다. 이방현 교수는 “만 9~45세 사이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하면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암의 90%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리를 하지 않는데 출혈이 난다면 자궁내막암을 의심할 수 있다. 비정상 자궁출혈은 자궁내막암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 곧바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면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 또는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진단과 치료를 해서 암으로 진행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난소암은 전체 여성암의 3.6%를 차지해 많이 발생하는 암은 아니지만 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 난소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80~90%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교수는 “골반초음파검사 등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면 암을 조기 진단하거나 난소 혹(종괴)이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진단과 치료를 해 암으로 진행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며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드물게 유전성 난소암이나 유전성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 차원에서 난소적출술을 시행해 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40~50years old 갱년기증후군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 여성은 갱년기증후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은 대부분 40~60세에 폐경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보통 40대 중·후반에 폐경 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때부터 월경이 완전히 없어지는 폐경까지 7년여의 기간을 통틀어 갱년기라 부른다. 갱년기 기간이나 증상은 여성마다 다르지만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이나 흡연 여성, 자궁절제술을 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폐경 시기가 조금 빨리 나타난다고 알려졌다. 이방현 교수는 “이 시기 여성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해 안면홍조, 질건조증, 우울증 등의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겪는다.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 호르몬대체요법을 시행하거나 콩, 석류 등 식물성호르몬이 포함된 식품을 복용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over60yearsold 노년기요실금

60대가 넘어 노년기에 이르면 요실금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노년기 요실금은 폐경 이후 여성호르몬이 부족해져 발생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 성인 여성 45%가 경험하고 있다.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소변이 나오는 복잡성 요실금과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소변을 지리는 절박성 요실금으로 나뉜다. 이방현 교수는 “요실금 증상이 반복되면 병원에 내원하여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망설이지 말고 진료 받으라고 조언했다. 요실금 치료법은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수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우선, 일정한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도록 노력하고, 알코올과 커피, 카페인 함유 식품, 매운 음식, 신 주스나 과일류처럼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은 되도록 피한다. 비만하면 골반근육이 약해지고, 과도한 복부지방이 방광을 압박해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흡연은 기침을 일으키며 방광을 자극해 요실금을 악화시키니 삼간다. 평소 둔부와 하복부에 힘을 빼고 항문과 질을 수축하는 기분으로 힘을 주면서 다섯까지 셀 뒤 서서히 힘을 빼는 케겔운동을 10회씩 하루 4~6차례 이상 하면 요실금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방현 교수는 가톨릭대학교 의학과 산부인과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예일대학교 Postdoctoral fellow 과정을 마쳤다. 현재 인하대병원 산부인과에서 난소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등 부인종양을 진료하고 있다. 이방현 교수는 “시기에 따른 여성 질환이 다양하므로 주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당신의 심장 건강을 위한 인하대병원 부정맥센터

심장이 정상으로 뛰지 않는 부정맥 환자가 늘고 있다. 이에 인하대병원은 부정맥센터를 열고, 부정맥 질환을 치료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 다른 심장 질환에 비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부정맥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병이다. 심방세동은 부정맥 대표 질환으로, 최근 인하대병원 부정맥센터는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췄다. 인하대병원 부정맥센터와 부정맥 질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의료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박지영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부정맥 근치를 목표로 하는 인하대병원 부정맥센터

부정맥은 돌연사 원인의 90%, 뇌졸중 원인의 20~30%를 차지한다. 최근 국내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서구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부정맥 중 심방세동 환자수가 2050년 무렵에는 약 200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과거 부정맥은 약물치료의 한계 탓에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없었지만 최근 컴퓨터 삼차원 지도화 시스템, 냉각도자 절제술 등 첨단 장비의 발전으로 심방세동뿐 아니라 복합 부정맥 치료가 가능해졌다.

부정맥 근치는 환자의 삶의 질을 호전시킨다. 이를 목표로 하는 인하대병원 부정맥센터의 자랑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의료진이 최신 의료 기술과 장비로 치료하는 점이다. 부정맥의 근원을 제거하는 전기생리학 검사 및 전

극도자 절제술, 인공심장박동기, 제세동기, 심장재동기화 치료 등 최신 부정맥 치료를 시행한다. 특히 국내 타 병원에 건진 뇌졸중과 연관된 심방세동 부정맥의 최신 치료법인 3차원 부정맥 시술 장비 및 풍선냉각도자절제술을 조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그간 치료하기 힘들었던 심방세동, 발작성 빈맥, 심실 빈맥 등 고난도 치료가 가능해졌다.

타 진료과와 협진,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진들과 진행하는 공동연구도 부정맥센터의 자랑이다. 인하대병원 부정맥센터장이자 심장내과 김대혁 교수는 “심장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타 진료과와 적극적으로 협진해 좀 더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다. 또한 인하대 공과대학 교수진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맥 환자들의 예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인하대병원 부정맥센터에서 쉽게 알려주는 부정맥 질환

부정맥 질환의 종류와 위험성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자. 먼저 부정맥이란 심장박동이 정상보다 지나치게 빠른 빈맥, 늦은 서맥, 불규칙한 심방세동 등으로 나뉜다. 쉽게 말해 모든 심장박동 이상 상태를 일컫는다. 인하대병원 심장내과 백용수 교수는 “특히 심장이 무질서하게 아주 빠르게 뛰는 심방세동(心房細動)이 생길 때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심부전이 생길 위험이 높다”고 설명한다. 조기 심장 박동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질환은 무척 다양하다. 먼저 ‘조기 심장 박동’은 가장 흔한 부정맥이다. 가슴이 ‘쿵’하거나 심장이 건너뛰는 느낌이 드는데, 성인의 80% 이상이 이를 겪는다. 백용수 교수는 “보통 일상생활에 별 지장을 주지 않지만 증상이 생기면 심장이 멎을 것 같다는 불안감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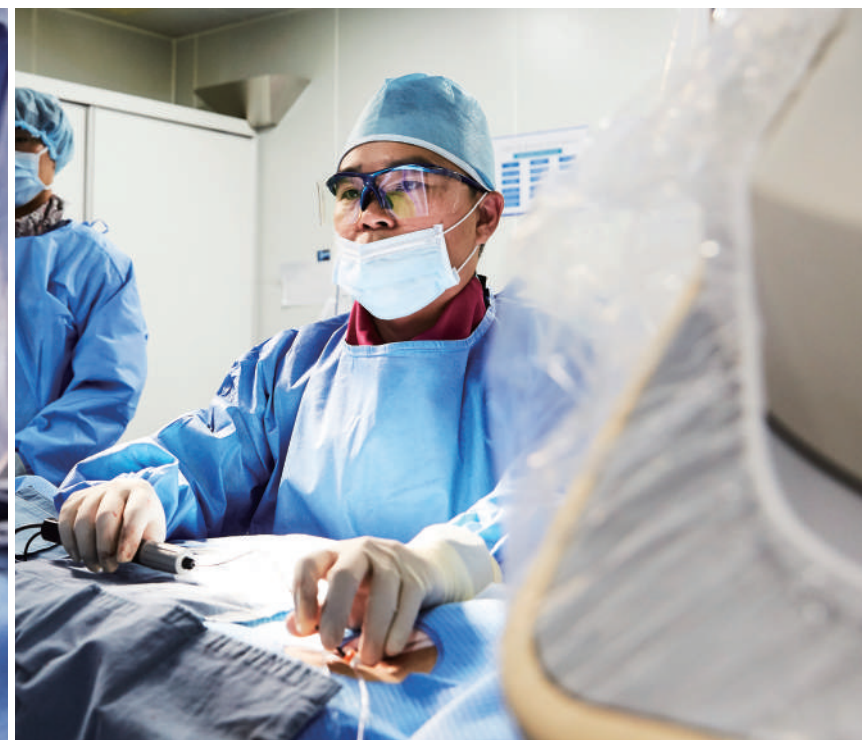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갑자기 심장이 규칙적으로 빠르게 뛰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은 증상이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백용수 교수는 “증상이 심하면 어지러움이나 흉통, 실신 등이 나타나는데, 이때 응급실을 찾는다. 대부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한다.

심방세동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빠르게 뛰는 ‘심방세동’은 뇌졸중이나 심부전 등을 일으키는 대표적 부정맥이다. 심방세동은 심장과 연결된 폐정맥과 좌심방의 접합부

에서 만들어진 악성 파형이 심방 전체로 전달되면서 심방 내 분당 400~600회의 빠른 그리고 불규칙한 파형이 지속된다. 이렇게 되면 심방은 미세하게 떨면서 수축력을 상실하게 된다. 정상이라면 동방결절에서 분당 60~100회 사이로 파형이 만들어져 제대로 심장이 짜주고 그제 말초혈관으로 연결돼 맥박수도 그대로 잡혀야 한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전기 자극으로 제대로 신호가 전달되지 않고 일부만 전달돼 실제로는 심방세동이 발생했을 때 150회 정도의 맥박수가 감지된다.

백용수 교수는 “심방세동에서 ‘세동’이라고 하는 의미가 한자로 ‘미세할 세’자에 ‘움직일 동’자다. 너무 빠른 파형에 의해 심장이 부르르 떠다고 해서 ‘잔떨림’이라고도 표현한다. 최근 고령 인구 증가로 전 인구의 2% 정도(100만 명)에서 나타나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이 제법 많아 병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탓에 치료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빠르게 뛰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고 전신피로감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심장 수축력이 떨어져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정상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혈액의 흐름이 불규칙해져서 심방 내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이 쉽게 형성된다. 이 혈전이 떨어져나가면 뇌경색 같은 발병률이 5배 이상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서맥 심장이 느리게 뛰는 ‘서맥’은 어지럼증이나 피로, 호흡곤란, 실신 등을 일으킨다. 서맥의 가역 원인이 없다면 인공 심장박동기가 근본적 치료다.



심장내과 김대혁 교수(부정맥센터장)

부정맥 치료의 중심이자 최고 센터로 거듭나겠습니다



부정맥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부정맥은 매우 다양한 질환입니다. 100% 완치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도 많습니다. 일시적 원인이 되는 부정맥이 소멸해도 구조적 심장 질환이 진행되거나 노화

등으로 다시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치료는 효과가 높으면서 부작용이 적은 치료입니다. 부정맥 질환의 특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제법 흔하다는 겁니다. 이때 부정맥만 목표로 하는 치료가 중요한지 아니면 부정맥으로 인한 다른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100% 완치가 어렵다고 여겨지면 부정맥으로 인한 다른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는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치료입니다. 부정맥과 관련한 또 다른 특징은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심실성 부정맥이 갑자기 발생하여 환자가 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측할 쉬운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장 기능이 많이 감소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좋은 예측인자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심장기능이 많이 감소한 환자는 심인성 급사를 예방하기 위해 '삽입형 심장 충격기'를 삽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으로 인하대병원 부정맥센터는 지역사회뿐 아니라 우리나라 부정맥 치료의 중심이자 최고의 센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장내과 백용수 교수

모든 환자께 가슴 편한 삶을 선사하겠습니다



심방세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감해져서 실질적으로 무증상을 겪는 환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위험도가 증가해 '사일런트 킬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는 정기검진에서 반드시 심전도검사를 받아야 합니

다. 증상이 없는 심방세동을 조기 발견하면 이후엔 뇌경색, 뇌졸중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치료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검진하고 이상 징후가 보일 때는 조기 치료를 시행하는 자세가 부정맥 치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부정맥 질환 중 가장 흔한 심방세동을 예방하려면 평소 갖고 있는 고혈압, 당뇨, 심부전, 허혈성심질환, 수면무호흡 같은 기저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 생활습관의 변화, 특히 적정 체중 유지, 금주, 금연, 과도한 운동 제한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인하대병원은 부정맥센터 개소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부정맥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가슴 편한 삶'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심실성 빈맥 부정맥 가운데 가장 위험한,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이다. 5분 이내에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CPR)을 해야 한다. 심근경색 등 구조적 질환으로 심장 기능이 많이 감소한 환자에서 잘 발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한다. 백용수 교수는 "심실성 빈맥이 발생할 환자를 예측할 수 있다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예측인자가 없는 실정이다. 예측이 비교적 명확한 환자나 심실성 빈맥을 경험한 환자에게는 삽입형 제세동기가 치료법이다"고 말한다.

부정맥 질환의 검사와 치료

부정맥 질환은 심전도 검사로 알 수 있다. 하지만 부정맥은 갑자기 생겼다 사라질 때가 많아 10초 정도 진행되는 심전도 검사로는 진단이 어렵다. 이때 환자 몸에 심전도기를 부착하고 24시간 내내 측정해 부정맥 여부를 확인하는 '홀터 심전도 검사'를 활용한다. 그러나 24시간 모니터링을 해도 부정맥을 진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럴 때 이식형 사건기록기(USB 저장장치 크기)를 가슴 부위 피하에 삽입한다. 2년 정도 지속적으로 심장 리듬을 모니터 할 수 있다.

심방세동은 심방세동을 제거하고 심장리듬을 정상화하는 것과 심방세동은 뇌내 채 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 NOAC)를 투여해 혈전을 예방하는 것 등이다. 심장리듬을 정상화하려면 항부정맥 약물 같은 약물치료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물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으면 전극도자절제술 등 중재적 시술을 시행한다. 전극도자절제술은 부정맥을 일으키는 심장 부위에 전극도자를 놓고 고주파열을 가해 태우는 시술이다. 최근 시간과



방사선 조사량을 줄인 '냉동풍선절제술'이 나와 시술 성공률이 높아졌다. 냉동풍선절제술은 심방에 작은 풍선을 밀어 넣은 뒤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이상 부위를 찾아 영하 75도로 얼려 한 번에 없애는 시술이다. 인하대병원 부정맥센터에서 국내 타 병원에 비해 냉동풍선절제술 장비를 조기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심실성 빈맥으로 돌연사(심정지)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삽입형 제세동기'를 가슴에 넣는다. 심장충격기는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악성 부정맥이 생기면 기계 스스로 부정맥을 감별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줘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맥박이 아주 느린 서맥이라면 인공적으로 심장박동을 일으키는 '영구 심박동기(Pacemaker)'를 가슴에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한다.



부정맥 진단과 예방 수칙

출처: 대한부정맥학회

- 1 평소와 다른 가슴 두근거림 같은 증상을 느끼면 손목동맥(요골동맥)을 만져서 맥이 고르게 뛰는지 확인한다. 정상 심장은 1분에 60~100회 규칙적으로 박동하므로 맥이 이보다 빠르거나 느리거나 불규칙하면 부정맥을 의심해볼 수 있다.
- 2 중년 이상의 연령대나 고혈압 환자, 가족 가운데 돌연사한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검사를 시행해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다. 심전도 검사는 돌연사를 일으키는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유전성 부정맥도 찾아낼 수 있다.
- 3 술과 카페인 음료를 삼가고 스트레스를 피한다. 흔히 접하는 술, 커피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
- 4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비만 등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저질환을 잘 관리해야 한다. 모든 심장병은 부정맥과 관련할 때가 많으므로 잘 관리한다.
- 5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심장질환 예방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다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6 부정맥은 아이러니하게도 증상이 심할수록 위험한 경우가 적다. 치명적인 부정맥일수록 평소 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검사(심전도 등)를 하여 부정맥 감별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DEVIL WEARS PRADA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와 <제리 맥과이어> 젊음, 성공과 삶의 변곡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와 <제리 맥과이어>는 허영의 세계에서 소박한 삶을 선택하고 비정한 세상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다. 젊은 시절에는 반드시 성공과 삶을 선택해야 하는 변곡점이 있는 듯하다.

글 송준호(대외홍보정책 실장·신장내과 과장) 사진 출처 네이버 영화 스틸컷

'관'이란 사랑, 존경심, 공동체 그리고 돈까지 포함하는, 인생에서 소중한 모든 것을 말하지
- 제리 맥과이어 중로드 티드웰의 대사 -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른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원하는 삶을, 어떤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규정하는 삶을, 어떤 사람은 매스미디어가 부추기는 삶을 산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으로 꼽히는 <맥베스>에서 맥베스는 마녀의 예언과 부인의 부추김에 현혹되어 헛된 야망에 빠져 왕을 살해한 후 공포와 불안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간다. 주체와 욕망을 다룬 철학자 자크 라캉은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했다. 맥베스 같은 비극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무의식 속에 스며든 주위 환경과 미디어의 부추김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선택하기도 하고 운 좋게 빠져 나오기도 한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와 <제리 맥과이어>의 두 주인공은 그런 면에서 운이 좋은 편이다. 사람들이 선망하는 패션과 스포츠 비즈니스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자아와 삶을 선택해나가는 젊은이의 모습을 두 영화는 감동적이면서 재미있게 그린다.

메릴 스트립과 앤 해서웨이가 이끄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로렌 와이스버거(Lauren Weisberger)의 동명의 소설을 각색한 영화다. 소설은 2003년 발표되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6개월 동안 이름이 올랐다. 와이스버거는 실제 패션 잡지 <보그>에서 전설의

편집장 '안나 윈투어'의 보조로 일 년간 일한 경험을 살려 소설을 썼다. 소설에 묘사된 피도 눈물도 없는 편집장의 실제 모델인 안나 윈투어는 패션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사로 알려져 있다.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노발대발하여 영화에 도움을 주는 업체는 각오하라는 경고를 했다는 후문인데, 막상 영화를 보고 나서는 흠족해했다고 한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메릴 스트립과 앤 해서웨이, 두 배우가 이끌어간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3회, 노미네이트 21회의 전설의 배우 메릴 스트립이 뉴욕의 패션잡지 런웨이의 악마 같은 편집장 미란다 프리스틀리를 열연하여 다시 한 번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된다.

메릴 스트립이 영화의 톤을 무게 있게 잡았다면, 앤 해서웨이는 비주얼을 담당한다. 옛되고 당찬 사회 초년생 앤디를 맡아 대배우에 밀리지 않는 연기력을 보여준다. 영화 중반 몽타주 시퀀스에서는 화려하게 펼쳐지는 패션 아이템들을 전문 모델보다 더 완벽하게 소화해 영화의 시그니처 신을 만든다. 이 영화로 그녀는 오드리 헵번이 돌아온 것 같다는 평을 듣는다.

앤디는 대학을 졸업하고 저널리스트가 되는 꿈을 갖고 뉴욕에 온다. 경력이나 쌓아 보려 세계 최고의 패션 잡지 런웨이의 편집장 미란다 프리스틀리의 어시스턴트 자리에 지원했는데 킬격 합격한다. 취업의 기쁨도 잠시, 앤디는 곧 그곳이 개미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아도취가 심한 선임자 에밀리아(에밀리 브런트)는 앤디를 부엌데기 취급하고 편집장실을 드나드는 간부들은 그녀의 촌스러운 패션 감각과

런웨이의 아트디렉터 나이젤은 촌뜨기 앤디를 드레스 룸으로 데려가 신데렐라로 변모시킨다. 뒷날 런웨이의 삶을 후회하는 앤디에게 나이젤은 "지미추를 신는 순간 난 악마한테 영혼을 판 것"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 지미추 신발을 넘겨주는 장면이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영화의 톤을 살린 메릴 스트립은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되고, 비주얼을 표현한 앤 해서웨이는 전성기의 오드리 헵번과 닮는 평을 듣는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영화상 가장 많은 의상비를 지출했다고 전해진다. 영화의 몽타주 시퀀스의 의상들: 샤넬 테일러 재킷과 샤넬 부츠(위 왼쪽), 샤넬 뉴스 보이 캡, 샤넬 코트, 켈빈 클라인 백, 마르니 힐(아래 오른쪽), 샤넬 캡, 미우미우 보트라인 블랙투스, 샤넬 마크 선명한 액세서리(아래 왼쪽), 켈빈 클라인 드레스와 샤넬 선글라스(아래 오른쪽).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해 아카데미 의상상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가져가버렸다.

66사이즈 몸매를 손가락질한다. 아노미에 빠진 앤디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친 것은 아트 디렉터 나이젤(스탠리 투치)이다. 나이젤은 앤디를 샘플 드레스 룸으로 데리고 가 지미추의 신발과 샤넬의 옷을 넘겨준다.

패션이 배우를 아이콘으로 만들 때가 있다. '페레가모'가 마릴린 먼로의 먼로 워크를 만들어내고 '지방시'가 오드리 헵번을 영원한 요정으로 만든 것처럼, 이 영화에서는 '샤넬'이 앤 해서웨이를 뮤즈로 만든다. 제목이 무색하게 대부분의 중요한 신에서 앤디는 샤넬을 입어 호사자들에게 영화 제목을 '앤 해서웨이는 샤넬을 입는다'로 바꾸어야 마땅하다고 지적 받기도 했다('프라다'는 '악마' 역인 미란다가 가끔 입는다). 나이젤의 도움으로 런웨이가 추구하는 외모로 변신한 앤디는 점점 착취와 혹사의 열정페이 세계로 빠져 들어간다. 커피, 런치, 세탁물 심부름은 기본이고 미란다의 아이들을 위해 해리포터 미출간 원고까지 구해야 한다. 핸드폰은 24시간 울러댄다. 딸을 만나러 멀리서 온 아빠는 역정을 내고, 남자친구는 떠나가버린다. 남은 것은 미란다 프리스틀리의 총애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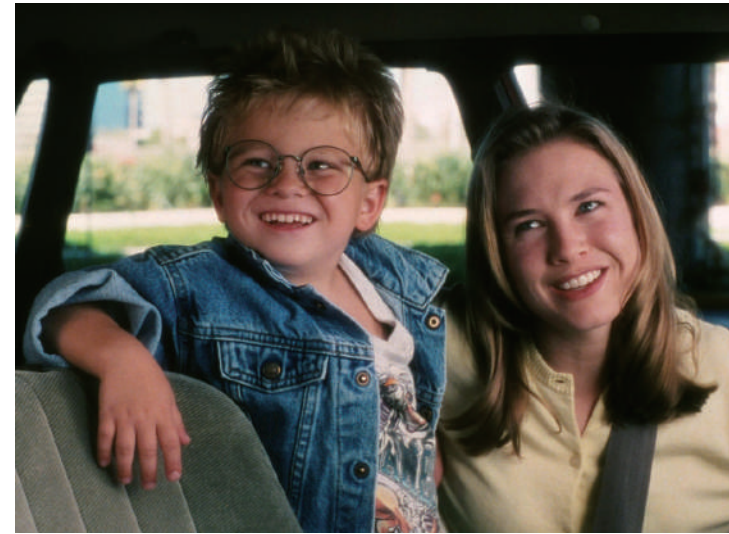
미란다의 신임을 받게 된 앤디는 파리 패션쇼 참석이 인생의 꿈인 선임자 에밀리아 대신 미란다를 수행하여 파리로 가게 된다. 앤디는 우연히 미란다를 몰아내고 그녀의 경쟁자를 새로운 편집장으로 앉히려는 회사의 음모를 알게 된다. 앤디는 이 사실을 미란다에게 알려주고, 미란다는 조용히 사태를 역전시킨다. 회사는 백기를 들고 경쟁자에게는 다른 자리를 던져준다. 공교롭게도 그 자리는 나이젤이 원하던 것이었다. 원하던 자리를 빼앗긴 나이젤은 '언젠가는 보상해주겠지'라며 씩씩해한다. 회의 속에서 앤디는 휴대폰을 버리고 조용히 미란다를 떠난다.

앤디는 런웨이에서 누리는 삶이 그녀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장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녀가 택한 삶이라고 이야기한다. 미란다의 착취를 원망하는 앤디에게 나이젤은 "지미추를 신는 순간 넌 악마한테 영혼을 판 것"이라고 말해준다. 미란다는 "나이젤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묻는 앤디에게 "너도 에밀리아에게 똑같이 하지 않았냐"고 답한다. 이 모든 삶은 앤디가 선택한 것이다. 그것을 자각한 후에야, 그녀는 뺏긴 영혼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영화는 샤넬과 지미추를 버린 앤디가 평범한 옷을 입고 뉴욕의 허름한 신문사 면접을 하러 가면서 끝난다.

기억할 만한 명대사가 많은 〈제리 맥과이어〉

〈제리 맥과이어〉는 따뜻한 영화다.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의 잘나가던 에이전시가 비정한 세상을 맞닥뜨리면서 우정과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로스쿨을 마치고 대형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에서 잘나가는 스포츠 에이전시로 일하는 제리 맥과이어(톰 크루즈)는 어



〈제리 맥과이어〉를 즐기고 따라나선 도로시와 그의 아들 레이. 그들에게 가족애를 느낀 제리는 도로시와 결혼하지만 평행선을 그린다. 로드의 성공으로 인생의 정점에 오르는 순간 제리는 도로시에게 돌아가 "네가 날 완성시켜(You complete me)"라고 고백한다.



역전의 터치다운으로 한순간 감동의 스타로 떠오른 미식축구 선수 로드를 연기한 쿠바 구딩 주니어는 영화 내용처럼 자신도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단숨에 무명에서 스타덤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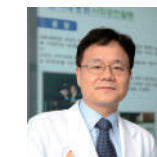
느 날 부상당한 아이스하키 선수의 아들에게 충격적인 욕을 먹는다. 제리는 무엇인가에 홀린 듯 '돈보다 선수들에게 진실한 관심을 기울이자'는 요지의 25쪽짜리 선언서를 만들어 회사에 뿌리고, 회사는 그를 해고한다. 고객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제리를 미혼모 도로시(르네 Zellweger)만 따라 나선다. 유일하게 남았던 NFL의 유망 선수 쿠쉬에게 따낸 계약은 수다스럽고 별 볼일 없는 미식축구 선수 로드 티트웰(쿠바 구딩 주니어) 때문에 날려버린다. 그에게는 애 딸린 비서 도로시와 수다스러운 미식축구 선수 로드뿐이다.

제리는 로드에게 모든 걸 걸지만 로드는 노력은 하지 않고 바라는 것만 많다. 제리는 외로움에 도로시와 결혼했으나 사랑인지 의무감인지 확신이 서질 않고, 제리의 마음을 알아챈 도로시는 그에게서 물러나려 한다. 로드는 진실한 플레이를 추구하는 제리를 점차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의 충고대로 게임에 열중한다. 로드의 팀은 중요한 경기를 치른다. 로드는 역전 터치다운을 성공하지만 상대의 태클에 의식을 잃는다. 경기장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의식을 되찾은 로드는 자신에게 환호하는 관중 앞에서 춤을 추며 일약 스타로 떠오른다. 경기가 끝난 직후 로드는 몰려든 기자들 속에서 자신의 에이전시 제리를 먼저 찾는다. 성공의 순간 제리는 도로시를 찾아가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킨다고 고백한다.

〈제리 맥과이어〉는 유난히 기억할 명대사가 많은 영화다. 로드의 대사 중 "돈 좀 보여주라(Show me the money)"는 관용어가 되어버렸다. 제리가 로드에게 정신 차리길 호소하면서 외치는 말 "너 좀 돕게 나 좀 도와줘(Help me help

you)"나 도로시에게 용서를 빌며 하는 "네가 날 완성시켜(You complete me)"도 손꼽히는 명대사다. 영화 중간 중간 제리의 멘토라며 가상 인물 '딤키 폭스'가 얼굴을 내밀고 "가슴이 비었다면 머리는 소용이 없다네" 같은 명언을 날리는데 이 사람은 배우가 아니고 실제 소니 픽처스의 부사장이라고 한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와 〈제리 맥과이어〉는 허영의 세계에서 소박한 삶을 선택하고 비정한 세상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이다. 젊은 시절에는 반드시 성공과 삶을 선택해야 하는 변곡점이 있는 듯하다. 〈제리 맥과이어〉의 로드는 제리에게 '인생의 관'을 찾으라 한다. '관'은 로드가 지어낸 말로 본인이 주장하길 사랑, 존경심, 공동체 그리고 돈까지 포함하는, '인생에서 소중한 모든 것'을 일컫는 단 한 단어다. 제리는 로드와 도로시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 '관'의 의미를 깨닫고 찾았다. 앤디도 지미추와 샤넬에 판 영혼을 가까스로 다시 찾고 그녀의 '관'을 되찾는다. 당신은 당신의 '관'을 찾았는가?



송준호 교수는 인하대병원 신장내과 과장으로 미국과 유럽 교과서에 챗터 저술을 한 국제적 투석 치료 분야 전문가이다. 본지에 매회 2편의 주옥같은 영화를 선별해 소개한다.

겨울 별미 쫄깃쫄깃 꼬막 요리

찬 바람 부는 겨울에 제맛이 드는 꼬막은 아미노산이 풍부한 별미다. 바라바락 씻어 팔팔 끓는 물에 삶아 요리하면 쫄깃쫄깃한 식감과 가득 퍼지는 육즙이 겨울 입맛을 깨운다. 익숙한 꼬막무침이나 꼬막비빔밥 대신 꼬막탕과 꼬막돈부리로 색다른 꼬막 맛을 즐기자.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요리&스타일링 박정윤(노하우스)

꼬막탕

재료(2인 기준)

꼬막 500g, 무 100g, 청양고추 2개,

미나리 1줄, 홍고추 1개

양념 된장 0.5T, 청주 1T

만들기

① 꼬막을 해감한 후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

② 무는 납작하게 썰고, 고추는 어슷하게 썰고 미나리는 6cm 길이로 썰어 준비한다.

③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푼 뒤 데쳐 낸 꼬막과 무를 넣고 끓인다. 한소끔 끓여오르면 청주를 넣는다.

④ 꼬막 입이 벌어지고 무가 거의 익으면 고추와 미나리를 넣고 한 번 더 끓인다.

꼬막돈부리

재료(2인 기준)

삶은 꼬막 250g, 밥 2공기, 달걀 2개, 양파 1/2개,

실파, 홍고추 약간씩

꼬막 밀간 양념 참기름 1/2, 맛술 1/2

돈부리 양념 물엿, 간장 3, 맛술 3T, 설탕 2T, 참기름 1/2

만들기

① 삶은 꼬막은 살만 발라 밀간 양념에 무쳐 놓는다.

② 돈부리 양념 재료와 채썬 양파를 작은 팬에 넣고 끓인 후 양파가 익으면 달걀을 넣어 완전히 익기 전 불을 끈다.

③ 그릇에 밥을 담고 돈부리 소스를 올린 후 꼬막을 얹는다.

④ 다진 실파와 홍고추로 장식한다.





3년 전 2016년 9월, 경기 판교에서 광주, 이천을 지나 여주까지 달리는 경강선 전철이 개통했다. 광주와 이천, 그리고 여주는 그동안 전철 레일이 닿지 않던 도시이기에 더 반가웠다. 경강선이 개통하면서 여주에서 강남까지 1시간이면 충분히 닿는다. 경강선이 달리기 시작한 후 여주와 이천은 주말 당일치기 여행지로 떠올랐고, 이제 더 이상 아웃렛 쇼핑을 하려고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연신 하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여주 역이 경강선의 종점이지만 훗날 경강선은 강원 원주를 지나 강릉까지 연결된다니 전철로 강원도 여행을 하게 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경강선 타고 경기 광주·이천·여주 차분한 계절의 손짓 따라 느리게 여행하기

한 해의 끝, 12월이 왔다. 머릿속을 단정하게 만들어줄 고요한 겨울 풍경을 찾아 판교역과 여주역을 잇는 수도권 전철 경강선에 올랐다. 한 해의 마지막까지 무사히 달려온 당신, 그렇지만 걸어온 길 위에서 조금은 고단했을 당신을 보듬는 고즈넉한 풍경.

글 박지영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광주, 도자와 한옥이 보듬는 위로

판교역을 출발한 경강선이 가장 먼저 만나는 도시는 광주. 자연 풍경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카페와 음식점이 곳곳에 생겨나면서 수도권 주말 나들이 장소로 각광받는 고장이다. 과거 한양을 지키던 4대 요새인 남한산성이 고장을 감싸는데, 남한산성 바로 아랫마을에는 전통 한옥으로 이루어진 경기 광주 한옥마을이 있다. 규모는 아담하지만 굳이 전라북도 전주나 경상북도 안동까지 먼 길을 나서지 않아도 좋을 만큼 옛집 특유의 고즈넉한 정취를 풍겨낸다. 마당에 소복이 내려앉는 겨울눈의 기척에 마음이 설레고, 창호지에 스민 은은한 달빛에 마음이 노곤해지는 한옥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 '한옥 스테이'도 가능하다. 한옥마을 안에 자리 잡은 한옥 카페 '새오개길39'는 차 한 잔 앞에 두고 고요한 시간을 즐기기에 좋다.

경기도자박물관은 경강선 곤지암역이나 초월역과 가깝다. 한국 전통 도자를 연구하는 전문도자박물관으로 조선 5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순백자, 청화백자, 분청사기 등 조선시대 관요에서 생산된 전통 도자기와 전통을 계승하는 현대작가의 작품을 상설 전시한다. 이곳에서 궁금하면서도 막연하던 도자의 품격과 전통을 알아볼 수 있다. 내년 1월 3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남북 도자, 하나 되어>라는 이름의 전시를 연다. 박물관과 함께 곤지암도자공원도 둘러보면 좋다. 느긋하게 걸으며 공원 곳곳에 놓인 조각과 작품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다.

주요 볼거리 남한산성, 화담숲,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 중대물빛공원, 팔당호, 울봄식물원, 퇴촌 토마토축제, 이영미술관



봄을 기다리게 하는 이천

경강선은 광주를 지나 경기 이천으로 향한다. 이천의 도자기와 봄은 이미 유명하다. 봄이면 많은 이들이 이천으로 몰려든다. 겨울을 보낸 메마른 땅에 잔잔한 봄비가 몇 차례 훑고 가면 꽃망울이 기지개를 켜는다. 노란 산수유다. 산수유 하면 지리산 자락 구례가 떠오르지만 이천 산수유마을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절정의 산수유를 만날 수 있다. 이천 백사면 송말리, 도립리, 도말리를 거쳐 경사리에 이르기까지 온통 산수유꽃이 탐스럽게 펼쳐진다. 어린 묘목부터 수령 500년 넘은 나무까지 1만여 그루의 군락지는 노란 물감을 통째로 쏟아부은 듯 황홀경을 선사한다.

겨울에 찾은 산수유마을에서는 노란 산수유꽃 대신 지난 여름과 가을 햇살에 빨갛게 익은 산수유 열매가 여행객을 반긴다. 내년 봄을 맞이하기 전 이천을 찾아도 좋은 이유다. 겨울이 쓸쓸한 까닭은 별을 찍는 시간이 짧아서일 것이다. 온 대지가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에는 마음까지 시리지만 붉은 산수유 열매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새삼 겨울이 뜨거워진다.

또 '이천'하면 지나칠 수 없는 하나가 이천의 맛, 쌀밥이다. 예로부터 토양이 비옥한 이천에서 나는 쌀은 임금님 수라에 진상할 정도로 맛이 좋기로 유명했다. 이천에서는 매년 가을 이천쌀문화축제가 열린다. 이천 쌀은 이제 우리나라 어디서든 만날 수 있지만 이천에 들렀다면 본 고장에서 임금님 수라에 올랐다는 그 밥을 맛보자.

주요 볼거리 설봉공원, 설봉산성, 테르메덴, 사기막골도예촌



여주, 역사와 전통이 궁금하거든

힘차게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 여주, 경강선의 종착역이다. 유난히 춥고 긴 겨울, 따뜻함이 더욱 절실해진다. 누군가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서로의 온기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싶은 것이다. 이 계절엔 우리의 감성도 저녁 굴뚝 연기처럼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여주에서 오래전 잠든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왕도 같은 마음일지 모르겠다. 여주역 전 정거장 세종대왕릉역에 내리면 역 이름 그대로 인근에 세종대왕릉이 위치한다.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합장릉이 자리한 곳이다. 현재 복원 정비 공사로 얼마간 관람할 수 없지만 아쉬운 마음은 세종대왕역사문화관과 세종대왕릉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영릉(효종대왕, 인선왕후)을 둘러보는 것으로 달래자.

여주 신륵사도 이 계절 들러봄직하다. 경강선의 종점, 여주역에 내리면 여주 시내 관광지로 갈 수 있는데, 신륵사는 여주역에서 차로 10분이면 도착한다.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신륵사의 백미는 한눈에 담기는 남한강 풍경이다. 신륵사에는 '강월헌'이라는 정자와 '삼층석탑'이 한 곳에 있는데, 이곳에서 바로 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을 바라보는 시간은 신륵사가 주는 특별한 선물이다. 남한강을 따라 신륵사와 영릉을 순환하는 황포돛대도 운행한다. 마지막 앞까지 뿔군 겨울나무와 남한강 위에 떠 있는 황포돛배가 한층 운치를 더한다.

주요 볼거리 강천섬유원지, 명성황후 생가,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목야박물관

정지한 듯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는 그림 같은 겨울 풍경은 늘 감동을 흠뻑린다. 한 해 한 해 조금씩 노화하는 몸의 섭리에 울적하던 참에 떠난 겨울 여행은 “크고 작은 삶의 고민에서 잠시 도망가도 좋다”고,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겨울 여행에서 짐짓 여유를 품은 일상, 고개 숙인 사색의 시간,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을 만났다. 여행처럼 관대한 일이 또 있을까. 추운 겨울일수록 길을 나서자.



인하대병원 본관 로비 성탄트리

당신의 건강을 위해 밝혀드릴게요



12월이 되면서 인하대병원 본관 1층 로비와 지하 1층 로비에는 아름드리 성탄트리가 들어섰습니다. 인하대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성탄을 축하하는 의미입니다. 인천 최초의 대학병원으로 개원한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시민과 함께하는 병원, 환자가 가장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많은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인하대병원은 변함없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인하대병원의 행보에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글 편집부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2019년 인하대병원 주요 활동

- 1월 희귀질환 경기서북부권 거점센터 선정
- 4월 홈페이지에 의료서비스 질 평가 공개
- 5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기관 선정
- 6월 모바일 앱(My 인하) 오픈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 7월 인천경찰 마음동행센터 개소
- 9월 제4회 생명존중 콘서트 개최
- 10월 부정맥센터 개소



모락모락 '호빵'의 계절

동그란 얼굴에 모락모락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호빵. 겨울 간식으로 호빵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편의점 한 구석에 빙글빙글 원통 찜기가 등장하고, 우리는 오래도록 추운 계절, 겨울이 시작됐음을 알아채는데요. '호호' 불어 먹는 따뜻한 호빵은 1971년 탄생한 달달한 전통 단팥호빵뿐 아니라 채소, 피자는 물론 요즘은 커스터드 크림, 단호박, 쌀, 고추장, 마라, 닭강정 맛까지 다양한 맛으로 진화해 우리의 겨울 입맛을 즐겁게 합니다. 물아치는 시린 추위 속에서도 속은 따뜻한 이유, 긴 겨울 동반자 '호빵' 덕분입니다.

글 편집부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인하대병원 정보보호팀 백상옥 팀장 · 고민석 주임

정보, 우리가 안전하게 지킨다

인하대병원 정보보호팀은 생긴 지 2년 된 신생팀이다. 팀원은 백상옥 팀장과 고민석 주임 단둘. 하지만 정보보호에 관한 이들의 전문 역량은 많은 인원 부럽지 않다. 백상옥 팀장과 고민석 주임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정리 박지영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안전한 병원을 만든다는 자부심

인하대병원 정보보호팀은 2017년 전산운영팀 안에 정보보호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시작해 2018년 신설된 팀이다. 정보보호팀과 전산운영팀을 겸직하는 백상옥 팀장과 고민석 주임 2명으로 구성된 단출한 팀이지만 이들은 '안전한 병원'을 책임진다는 커다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

정보보호팀에서는 병원 정보보호의 전반 업무를 담당하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및 유지, NAC(네트워크 접근제어), DLP(데이터 유출방지)를 전사로 확대 적용하는 등 다양한 업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외부의 병원 전산 시스템 공격 차단이라는 최전방, 환자의 소중한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최후방 활동을 한다.

정보보호팀의 가장 큰 자량은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업무를 큰 무리 없이 진행했다는 점이다. 팀 구축 후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 두 차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환자의 개인 정보보호, 병원 주요 시스템의 해킹 및 침해를 방지하는 전문 솔루션 6종을 도입하여 구축했다. 백상옥 팀장은 전산운영팀의 도움 덕에 이런 결과를 냈다고 말한다.

“전산운영팀 27명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정보보호팀의 업무가 무사히 정착했습니다. 전산운영팀 담당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자세로!
”

정보보호팀 백상옥 팀장



2000년 7월에 인하대병원에 입사했으니 2020년이면 입사 스무 해가 되네요. 한진정보통신 소속, 전산팀 개발자로 시작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새 '팀장'이 되어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분 좋은 변화지요. 현재 전산운영팀과 정보보호팀 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외부에서 나쁜 의도로 시행하는 병원 공격을 막고, 두 번째는 내부의 주요 정보가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입니다. 정보보호 담당자인 고민석 주임이 해당 업무의 관리·보안 역할을 담당하고 저는 정보보호 장기계획, 전략 및 전산운영과 충돌하는 부분을 조율합니다.

전산운영팀과 정보보호팀을 함께 책임지는 자리이다 보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산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를 위해 항상 제한적 운영을 염두에 둡니다. 전산운영팀장과 정보보호팀장을 겸직하는 만큼 다양한 일이 생깁니다. 정보보호팀은 보안이 최우선이므로 전산개발 업무가 다소 불편해도 보안정책을 정합니다. 반면 전산운영팀은 원활한 운영이 최우선인 만큼 그 원칙을 정합니다. 그렇다 보니 두 업무 간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저의 주요 업무입니다.

처음 정보보호 정책을 적용할 때는 병원 직원들이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니까요. 다른 산업은 '정보보호'라는 분야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중요하게 인식되었지만 병원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보호 정책을 도입해 실행하면 '이건 왜 해야 하지?' '나는 안 하고 싶다' 등 불만을 표하는데, 그런 직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때 힘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우리 입장을 조금씩 이해해주고 너그러운 태도로 바뀔 때 보람도 큼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자리,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며 병원정보 시스템의 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안체계
구축을 목표로!
”

정보보호팀 고민석 주임



인하대병원 소속으로 근무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병원 전산을 담당하는 한진정보통신 소속으로 7년간 전산 개발자로 근무하다 정보보호 담당자 직무에 지원하여 인하대병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정보보호팀에서는 병원 정보 자산의 위협관리 및 취약점 분석, 직원의 정보보호 교육, 사용자 업무환경 보안, 정보 시스템 보안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 법제 사항 준수를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가 주요 업무입니다.

정보보호팀은 병원에서 가장 인원이 적은 팀이지만, 병원의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인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이서 할 수 있는 최대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보안에 100프로 완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완벽하다 생각할 때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기에 방심하지 않고,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하지만 보안을 지키기 위해 일하다 보면 업무 편의성이나 효율성과 많이 부딪히는데요. 대개 전산은 업무 개선을 돕는 용도인데, 저희는 보호 때문에 제한을 많이 두니 서로 상충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절충안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병원 보안을 강화할수록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보보호 문화가 정착해가면서 직원들이 많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정보보호팀에서는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다양한 보안제품을 도입하면서 직원 PC 사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 정보보호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보보호팀은 직원과 환자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안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정보보호 전문 역량을 확보하여 새로운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인하대병원 생명존중콘서트

우리 가족에게 많은 의미를 남기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인하대병원 생명존중콘서트를 관람했다. 다녀올 때마다 잔함, 소중함, 희망, 슬픔, 눈물 등 많은 생각과 감정이 남는다. 지난해, 우연한 기회로 다녀온 생명존중콘서트에서 많은 의미를 얻은 우리 가족은 올해도 망설임 없이 영종도로 출발했다.

글 소현화(인천단봉초등학교 특수학급반 담임교사)



아들과 딸은 본 행사를 시작하기 전 많은 부스에서 진행된 행사에 무척 즐겁게 참여했다. 부스에 상주하는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하고 밝은 모습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아들과 딸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희귀질환에 대한 설명을 귀담아 들었다. '인하'의 의미도 듣고, 생명위시대응센터의 설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행사의 의미를 알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니 어느 틈에 아이들이 훌쩍 자란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다.

아들은 희귀질환은 아니지만 만성천식과 두드러기로 올해만 병원에 세 번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았다. 치료 중에 호흡곤란, 쇼크, 경련 증상을 겪어 희귀약품을 처방 받은 상황이었기에 나와 아들에게는 이번 행사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아들은 올해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에서 맞는 주사가 너무 아파서 많이 울고, 입원을 싫어했는데 행사에 참여하던 중 나에게 다가와 "주사가 많이 아파서 정말 힘들지만 내 생명은 소중한니 꼭 참고 치료 잘 받을게"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 마음과 고통을 짐작만 하는 나는 그만 눈물이 났다.

나아직 살아 있다고 소리 질러

이번 행사에도 많은 초대가수가 온다고 해서 우리 가족은 신나게 즐기자고 했다. 가창력을 뽐내는 다양한 가수들이 공연을 했는데, 그중 원미연 씨가 기억에 남는다. 처음 들어본 원미연 씨의 노래 <소리 질러>는 분명 가사의 의미는 다르지만 이번 콘서트와 딱 맞는 노래가 아니었나 싶다.

'소리 질러. 나 아직 살아 있다고 소리 질러. 나 아직 꿈이 있다고'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에 먹먹해지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중도중복장애 학급 담임인 나는 노래를 듣는 내내 우리 반 아이들이 생각났다. '그래, 우리 아이들이 소리는 지르지 못하지만 분명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 살아 있다고, 꿈이 있다고 표현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며 무조건 나의 교육방법으로 이끌어 온 것이 무척 미안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의 표정 하나하나 찬찬히 살피는 교사가 되자고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했다.

공연장 둘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계속 눈물이 흐르는 바람에 맨 뒤로 자리를 옮겨서 남은 콘서트를 즐겼다. 두 번째로 참여하는 이번 콘서트도 우리 가족에게 많은 의미를 남겨주었다. 내년 생명존중콘서트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귀중한 의미를 가슴에 품고 갔으면 좋겠다.





순수한 미소가 아름다웠던 방글라데시

글 최규원(서12병동 간호사)

‘방글라데시’, 이름은 익히 알았지만 문화나 정보는 거의 모른 채 그저 인도 옆에 위치한 ‘세계 최빈국’이라는 수식어로 기억하던 나라다.

마침내 10월 6일, 교수님 세 분과 전공의 선생님 한 분, 간호사 선생님 다섯 명과 사회공헌지원단 팀장님, 그리고 협력사인 포스코, 구세군 선생님까지 총 14명이 방글라데시로 향했다.

방글라데시의 첫인상은 오기 전 찾아본 정보와 대부분 일치했다. 엄청난 인구밀집도와 교통체증, 창문이나 깨진 채 달리는 버스 등 일말의 불안감을 가진 채 봉사 장소로 향했다. 봉사 장소인 마타바리는 수도 다카에서 비행기로 1시간 남짓 떨어져 있다. 마치 우리나라 1960~70년대 시골을 보는 듯한 풍경을 한 곳이다.

진료 장소는 ‘푸란 바자 초등학교.’ 3일 동안 수많은 주민이 찾아왔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한 증상의 많은 환자를 만났다. 대학병원 같은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살펴보고 약을 처방하면 주민들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하나라도 더 해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과 보람찬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새삼 ‘나는 원할 때 바로 진료를 볼 수 있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하는 생각에 감사했다.

또한 매일 아이들을 대상으로 손 위생교육을 실시했는데, 순수한 눈망울을 한 아이들이 잘 따라 하고 대답을 하며 교육받는 모습에 그날의 피로가 잊힐 정도였다.

최종 3일 동안 1500명 진료 및 의료 활동 1만 번째라는 기록을 세우고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방글라데시는 첫인상과 다르게 너무나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였다.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온 것 같아 마음이 보람으로 가득해졌다. 지금도 그때 사진을 보면 그날의 보람과 뿌듯함이 느껴진다. 봉사를 하며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 정말 좋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무척 행복한 일임을 깨달았다. 이번 봉사활동이 내겐 무척 값진 경험이였다.



방글라데시 의료봉사, 잘 다녀왔습니다

인하대병원원은 지난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방글라데시 마타바리에 있는 푸란 바자 초등학교에서 현지 주민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방글라데시 의료지원 봉사를 다녀온 이들이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글 조운형(서12병동 간호사)

출국 하루 전, 짐을 정리하면서도 도무지 실감이 나질 않았다. 이제 몇 시간 뒤면 방글라데시로 의료봉사를 떠난다. 처음 가보는 ‘방글라데시’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다.

우리가 봉사할 곳은 ‘마타바리’라는 지역의 작은 학교였는데, 환경이 무척 열악했다.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많은 사람이 오염된 물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길가에 놓인 쓰레기더미와 또 그 안을 뒤지는 사람과 짐승이 뒤죽박죽이었다.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흔했다. 학교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주민의 긴 대기 줄이 환영 인파처럼 도열해 있었다. 지역 주민들은 아픈 곳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을까?’하고 생각했지만,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내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 하지만 각오를 다지고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크고 작은 위기에 봉착했다. 나는 접수처에서 주민들의 증상을 파악하고 진료를 분류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증상을 물어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는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옆에서 도와주던 통역사도 당황할 정도로 환자들의 정확한 진료과 분류가 어려웠다.

시간이 지나도 줄은 줄어들지 않았다. 찻잔으로 바닷물을 퍼내는 느낌이었다. 무겁고 습한 날씨에 천막 아래 그늘 속에서도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힘들다는 생각을 애써 떨쳐내며 접수를 마치고 진료과로 향하는 주민의 손에 개인위

생을 위해 손소독제를 뿌려주었다. 그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나는 소독제를 뿌려주었을 뿐인데 그 주민은 내가 성수를 뿌려준 것처럼 좋아하며 고마워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에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 ‘고작 손소독제를 뿌려주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받을 일인가?’ 이렇게 좋아하며 감사를 표하는 건 그 사람뿐이 아니었다. 그 뒤로 꽤 많은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진료를 마치고 처방받은 약봉투를 흔들며 환하게 인사하는 사람도 많았다. 내 앞에 머물던 아이들은 내가 가져온 모기퇴치제를 서로 뿌려주며 까르르 웃어댔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미소를 잃지 않을까?’ 잠깐 의아했지만 금세 그들의 웃음에 동화된 채 나 또한 말 그대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조금 전 힘들어하던 생각은 나도 모르는 새 사라졌다. ‘UN 최빈국’이지만 세계에서 제일 행복지수가 높다는 방글라데시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의료지원활동은 순식간에 끝이 나버리고, 나는 마을 주민들에게서 뜻하지 않은 마음의 위로와 철학적 깨달음까지 얻고 돌아왔다.

그들의 행복은 대단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 풍족함은 없지만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도 즐거움을 찾았다. 이번 기회로 그동안 익숙함에 젖어 있고 살았던 내 삶의 여러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떠올려보았다. ‘퇴근 후 나를 맞는 우리 집 조명’, ‘넷플릭스를 보며 먹는 피자’,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다 발견한 근린식권’ 등이 그러하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각자만의 ‘소확행’을 떠올리며 지친 일상에 서 한 줄기 단비를 찾길 바란다.



똑똑하게 챙기는 약 사용 설명서 ⑥

생리 늦추는 약

여성이라면 숙명과 같은 생리. 한 달에 한 번 으레 일상적으로 치르지만 중요한 시험이나 잔뜩 기대하는 여행 일정 등과 날짜가 겹치면 곤란하다. 이때 생리를 늦추는 약을 복용하는데, '생리'를 거스르는 만큼 복용법과 부작용 등을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한다.

글 Ref. 약학정보원 약물백과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여행 기간에 생리를 할 것 같습니다. 불편할 것 같아 생리를 늦추고 싶은데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나요?

원래 생리 늦추는 약으로 따로 분류한(허가되어) 약물은 없지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과 프로게스틴(황체호르몬)이 혼합된 사전 피임약이 생리를 늦추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프로게스틴은 자궁내막을 유지시켜 생리를 늦추고, 에스트로겐은 부정기(일정하지 않은) 출혈을 막아줍니다.

생리를 늦추는 약은 어떻게 복용하나요? 복용 중에는 피임 효과도 있나요?

생리 예정일에서 최소 7일 전에 복용을 시작하여 원하는 날까지 휴약기(약을 복용하지 않는 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복용하며, 마지막 복용 후 2~3일 내 생리가 시작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리를 미루기 위해서 생리 예상일 7~10일 전에 복용하기 시작하면 이미 난자가 배란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임 효과는 없습니다. 임신을 원치 않는다면 피임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피임이 목적이라면 생리 첫날 복용을 시작해 하루 한 알씩 21일 또는 28일간 복용합니다.

생리 늦추는 약을 복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주의사항도 알려주세요.

생리 늦추는 약의 종류에 따라 부작용이 다르며, 가장 흔한 부작용은 메스꺼움입니다. 메스꺼운 증상은 취침 전에 복용하거나 저용량으로 변경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생리 늦추는 약을 먹으면 임신 때와 비슷한 호르몬 상태가 되므로 임신 때 경험하는 증상이 부작용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몸이 붓고, 유방이 팽팽해지면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밖에 점상출혈 및 주기적 출혈, 무월경, 우울증, 체중 변화(감소 및 증가), 두통 등이 혼잡합니다.

심한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은 생리 늦추는 약의 흡수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후 3~4시간 내 구토를 하게 되면 복용하지 않는 것

으로 간주하여 한 알을 더 복용합니다. 부정기 출혈(점상 혹은 파괴성출혈)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일시적이므로 계속 생리 늦추는 약을 복용합니다. 다만, 출혈이 오래 지속되거나 출혈량이 과다하면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인하대병원 처방 조제 가능 약국

용현동	약손약국	032-884-1886
주안동	라성약국	032-831-6065
도화동	인암종로약국	032-875-0509
주안동	건강드림약국	032-433-5319
용현5동	현대메디칼약국	032-889-1891
송현동	백제약국	032-764-5747
송림동	종로약국	032-766-9301
	보명약국	032-762-3347
구래동	김포도담약국	031-987-5936
선학동	건강백세약국	032-813-2274
연수동	연수태평양약국	032-818-7010
옥련동	온누리현대약국	032-831-4822
	동의당약국	032-834-8274
송도동	신도시약국	032-851-7516
용종동	온누리건강백화점약국	032-545-1535
작전동	우리팜약국	032-551-7535
작전동	유원약국	032-551-5650
향동7가	유한온누리약국	032-883-2600
운서동	영종태평양약국	032-746-1313
구월1동	이레약국	032-462-1851
구월동	구월메디칼약국	032-424-7425
구월4동	연세프라자약국	032-462-0392
부평6동	행복한온누리약국	032-503-9339
	옵티마부평성모	032-505-2035
가좌동	메디팜성모약국	032-576-2028

인하대병원은 환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합니다. 약에 대한 문의는 주간 032-890-3323, 3327, 야간 032-890-3315로 하시면 됩니다.



2019. 9. 3
인터뷰: **외과 박근명 교수**
언론사: 동아일보
주 제: 걸을 때 다리 통증 심하면 '하지동맥폐색증' 의심해야



2019. 9. 5
기고자: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
언론사: 조선일보
주 제: 가슴기살균제, 폐손상3,4단계에도 연관성 있다



2019. 9. 11
인터뷰: **신장내과 송준호 교수**
언론사: 인천일보
주 제: [스펙트럼 인] 100세 시대, 행복하려면



2019. 9. 25
기고자: **감염내과 권혜윤 교수**
언론사: 헬스조선
주 제: 가을 야외 나들이 나간다면 '감염병' 주의하세요



2019. 9. 25
기고자: **소화기내과 박진석 교수**
언론사: 중앙일보
주 제: 만성췌장염



2019. 10. 2
인터뷰: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
언론사: 중앙일보
주 제: "공장 먼지 때문에 숨막혀요"... 마을주민 피해 막을 수 없나



2019. 10. 3
인터뷰: **신경외과 현동근 교수**
언론사: 인천일보
주 제: [의학칼럼] 뇌출혈, 골든타임 이 생명 지킨다



2019. 10. 14
기고자: **심뇌혈관질환센터 나정호 교수**
언론사: 중앙일보
주 제: 얼굴 마비, 어눌한 말투? 120콜러 뇌졸중센터로



2019. 10. 16
기고자: **이비인후과 김규성 교수**
언론사: 경인일보
주 제: 어지럼증 원인이 '돌'? 귀를 의심케 한 병명



2019. 10. 26
기고자: **신경외과 심유식 교수**
언론사: 기호일보
주 제: 인하대병원 심유식 교수, '생명나눔 공로상' 수상



부정맥센터 개소

인하대병원이 부정맥센터를 개소했다. 지난 7월, 인천 최초로 최신형 심방세동 치료 냉각도자절제술 장비(cryoballoon ablation)를 도입하고, 8월 19일 첫 시술을 시행했다. 더불어 기존에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 장비와 함께 부정맥의 대표 질환인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부정맥센터 개소로 지역사회의 '날뛰는 심방박동'을 치료할 준비를 마쳤다. 인하대병원 부정맥 센터장 김대혁 교수(심장내과)는 "부정맥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그중에서도 대표 질환인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부정맥 센터의 시작을 알린다"며 "부정맥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위해 24시간 365일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의료봉사단 방글라데시에 파견

인하대병원 사회공헌지원단은 지난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방글라데시에 국제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 이번 봉사는 포스코건설과 함께 진행했다. 인하대병원 사회공헌지원단장 김명옥 교수, 가정의학과 최지호 교수, 신장내과 송준호 교수를 비롯해 서12병동 최규원 간호사, 동12병동 송호정 간호사, 동10병동 김현빈 간호사, 서12병동 조운형 간호사, 내과 계중환자실B 임학천 간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봉사단은 방글라데시 현지인들에게 의료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서 1,540명을 진료하며 인하대병원과 포스코건설이 함께 진행한 의료지원 활동 1만 번째 진료를 달성했다.



제4회 생명존중 콘서트 개최

'인천시민과 인하대병원이 함께 하는 생명존중콘서트'가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기념해 인천 영종국제도시씨사이드파크 하늘극장 특설 무대에서 열렸다. 올해로 4년 연속 개최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희귀질환 이해를 통해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이 콘서트는 포스밴드와 포스코건설 합창단인 포스코러스, 리얼리티 밴드의 공연으로 화려하게 오프닝 무대를 열었다. 뒤이어 가수 박상민, 원미연, 네이브로, 적우, 조성모의 공연이 이어지며 마무리 되었다. 김영모 병원장은 "올해로 4년 연속 큰 행사를 준비했다"며 "생명존중의 모토가 시민들에게 더 확산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로 시민들과 더 많이 호흡하고 싶다"고 말했다.



희귀질환 경기서북부 거점센터, 현판식 진행

인하대병원 희귀질환 경기서북부 거점센터가 현판식을 진행했다. 현판식은 김영모 인하대병원장, 안승익 진료부원장, 이지은 희귀질환 경기서북부 거점센터장을 비롯해 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1월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사업'에 경기서북부권 거점센터로 선정된 후(사업수행기간 2019.2.1~2020.12.31) 지난 5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긴밀한 진료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을 진행해왔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인하대병원이 '2019년도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선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기념해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고, 자살 예방에 공헌한 사회 각 분야별 우수 지자체,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유공자 표창을 진행했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2년 9월, 인천시와 '자살시도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2월, 보건복지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더불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개소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자살고위험군 발굴, 인천 관내 지역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살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하대병원-대한항공, 비에나 서브에이스로 기부 '개당 20만원'
인하대병원과 대한항공이 작년에 이어 외국인 선수 서브로 기부에 나선다. 인천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개막전에 앞서 기부금 적립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했다. 2019~2020시즌 V-리그에서 외국인 선수 안드레스 비에나가 서브에이스 기록을 세우면 1점당 인하대병원 10만원, 대한항공 10만원씩 총 20만원을 기부한다. 비에나는 스페인 국가대표 선수로 2018~19 스페인 프로리그 우승을 이끌고 MVP로 선정되는 등 뛰어난 배구 센스와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는 선수이다. 이번 행사로 적립된 금액은 시즌이 끝난 후 인하대병원 환자를 비롯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



방글라데시 의료진에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 시스템 전수
방글라데시 의료진에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료시스템 견학 및 교육 시간을 가졌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에서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의 모범 체계를 갖춘 병원으로 선정된 인하대병원에서 방글라데시 의료진은 체계적인 '뇌사 추정자 스크리닝 시스템(INDR, Inha Donation Rounding)'을 소개하고 직접 참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원내에서 기증과 관련하여 협업이 이루어지는 여러 진료 과와 의료의 질 향상 활동 등 전반 사항을 견학 공유하고, 장기기증의 인식 개선에 필요한 의료진 교육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하대병원 전체에 깨끗한 공기 제공 '숨 쉬기 좋은 곳'
인하대병원이 병원 내 모든 공조시스템(Air Handling System)을 최신형으로 전면 교체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공사는 총 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향후 연간 필터 교체 비용만 1억 원이 넘는다. 쾌적한 냉난방 제공은 물론 보다 깨끗한 실내 공기 질을 유지하여 환자들이 보다 청정한 환경에서 진료 받게 하려는 목적이다. 교체한 공조 시스템에는 고효율 필터(MERV 14등급)를 장착, 일반 미세먼지(PM10)보다 건강 위해가 큰 초미세먼지(PM2.5) 제거효율이 90%이상 높아졌다. 특히 외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에서도 병원 실내에는 깨끗한 공기를 공급, 전 병동이 초미세먼지 ' 좋음' 상태(15 μ g/m³이하)를 유지할 수 있다.



인하대병원, '손 위생 증진 행사' 개최

인하대병원은 직원, 환자 및 내원객을 대상으로 감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손 위생 증진을 위해 '감염 관리의 날-손 위생 증진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감염 관리의 날 행사'는 손 위생에 대한 관심 및 지식을 전달하고, 감염 관리와 환자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손 위생 퀴즈 이벤트, 손오염도 측정 행사, 기립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편, 인하대병원 감염관리실은 환자와 직원을 의료 관련 감염에서 보호하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감염관리 정책 수립, 의료 감염 감시, 역학조사, 감염관리 교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지원 방사선사, 제17회 유방전문방사선사 시험 전국수석 합격
일반촬영실 이지원 방사선사가 제 17회 유방전문방사선사 시험에 전국수석으로 합격했다.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은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고 임상경력 5년 이상의 방사선사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총 17개 전문분야의 업무 자격을 평가받는 제도다. 이지원 방사선사는 "환자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검사정보와 검사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꾸준한 직무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진료 안내 (2019년 12월 15일 기준)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가정의학과 ☎2240	최지호	가족건강관리, 금연	
	이연지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조세욱	노인의학	
감염내과 ☎2219	이진수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백지현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권혜윤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임재형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국제진료센터 ☎2080	박용재	일본내과	
뇌신경센터(BNC) ☎2370 2375	신경과 NRNN	나정호	뇌신경질환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배은기	해위연수 2019.9.1 ~ 2020.8.31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최석진	말초신경,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척수질환, 수술중감시,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증, 뇌전증, 수면장애	
	신경외과 NSNN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뇌혈관센터 (CBC) ☎3860 3865	신경과 (NRCB)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신경외과 (NSCB)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당뇨 & 비만센터 ☎3360, 2215	내분비 내과	홍성빈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김소현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안성희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서다혜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정미혜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조용인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외과	허윤석	비만·당뇨·위수술
소아청소년과	이이지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가정의학과	이연지	인식행동요법, 체중감량후체력증진	
류마티스내과 ☎2210~1	박 원	관절염, 골다공증, 루푸스	
	권성렬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임미진	관절염, 척추염, 통풍	
	정경희	해위연수 2019.8.1 ~ 2020.7.31	
	이승윤	관절염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우철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김한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비뇨의학과 ☎2360	이정심	부인암, 유방암, 특수방사선치료	
	윤상민	중앙, 결석, 신이식	
	이택	전립선, 중앙, 결석, 소아	
	류지간	성기능장애, 남성불임,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강동혁	중앙, 결석, 전립선질환, 내비뇨기과학	
산부인과 ☎2270, 2117	정두용	비뇨기 중앙, 결석, 전립 질환	
	김동호	중앙학, 복강경	
	이병희	중앙학, 불임, 폐경기	
	황성욱	중앙학, 복강경	
	최수관	고위험임신, 정밀초음파	
성형외과 ☎3870	이방현	중앙학, 복강경	
	장신아	일반부인과, 부인과내분비학	
	황 건	얼굴외상 및 골절, 흉터 성형술	
성형외과 ☎3870	기세휘	미세수술, 수부외과수술, 하지재건술, 손튼박재건술, 미용수술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성형외과 ☎3870	최승석	신경재건, 손목터널증후군, 수부, 당뇨발, 피부양성종양, 흉터, 미용성형, 체형교정, 보톡스 및 필러	
	김순기	혈액, 중앙, 내분비, 비만, 성장	
	전용훈	신생아, 미숙아, 발달	
	임대현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김정희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권영세	신경, 뇌전증(간질), 두통	
	이지은	사춘기조숙증, 저신장, 당뇨, 갑상선, 내분비질환, 신장질환	
	김동현	감염, 결핵, 불명열, 특수예방접종, 여행자의학	
	이주영	신생아, 미숙아, 발달	
	김수진	유전성대사질환, 사춘기질환, 저신장, 당뇨병, 갑상선내분비질환	
	신은정	소아심장(선천성 심질환, 가와사키병, 소아고혈압, 심초음파), 소아신장질환	
	남수경	신생아, 미숙아, 발달	
	신용운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김형길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소아청소년과 ☎2260	이돈행	담도·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권계숙	해위연수 2019.9.1~2020.2.29	
	이진우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정 석	담도암, 췌장암, 담석증, 담도·췌장질환, 위내시경	
	진영주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박진석	소화관, 간, 담도, 췌장질환	
	유정환	간, 소화관,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고원진	위장관 질환, 소화관 암(위암, 대장암), 식도운동질환, 역류성 식도염, 비만	
	소화기내과 ☎2224	나정호	뇌혈관질환, 뇌졸중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배은기	해위연수 2019.9.1 ~ 2020.8.31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최석진	말초신경,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척수질환, 수술중감시,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증, 뇌전증, 수면장애
신경과 ☎3860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류달성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축만증	
신경외과 ☎2370	이승우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송준호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황선덕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김기표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김기표	신장이식	
	황선덕	신장이식	
신장내과 ☎2229	박근명	신장이식	
	정한영	해위연수 2019.9.1 ~ 2020.2.29	
신장이식 클리닉 (KTC)	NHKT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 두경부 통증	
	GSKT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 두경부 통증	
심노재활센터(RMCR) ☎2480	권 준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고혈압	
	김대혁	부정맥, 실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심혈관센터 (CVC) ☎2200	CV	우성일	관동맥질환, 심혈관중재술, 고혈압
		신성희	심부전,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권성우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심혈관 중재술
	PD	박상돈	해위연수 2019.8.7 ~ 2020.8.6
		백용수	부정맥 심방세동 서맥 빈맥 전극도자절제술
		신은정	소아심장(선천성 심질환, 가와사키병, 소아고혈압, 심초음파), 소아신장질환
인과 ☎2400	문연성	망막, 유리체, 포도막	
	진희승	망막, 유리체, 백내장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안과 ☎2400	강성모	성형안과, 사시	
	김나래	녹내장, 백내장	
	정지원	분만휴가 2019.12.16 ~ 2020.03.14	
안과레이저 알레르기내과 ☎2217	김요셉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EVAL	레이저클리닉	
영상의학과 ☎2740~3	김철우	천식, 만성기침,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 질환	
	조순구	중재적 영상의학	
	전용선	중재적 영상의학	
외과 ☎2250	김우철	유방방사선학	
	신석환	소화기외과, 위암	
	안승익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이건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허윤석	소화기외과, 위	
	최선근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허민희	유방, 내분비외과	
	최유미	갑상선수술, 소아외과	
	신우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박근명	혈관이식외과	
	정성택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이진욱	유방, 내분비외과, 구강내시경수술, 로봇수술	
	안중혁	유방, 내분비외과	
	최정식	간담도외과, 일반외과	
김재환	유방, 갑상선		
유방갑상선 외과센터 (BTC) ☎2560~1	외과 GSBT	허민희	유방, 내분비외과
		이진욱	유방, 내분비외과, 구강내시경수술, 로봇수술
이비인후과 ☎2420~1	성형외과(PSBT) 정신건강의학과(PT)	안중혁	유방, 내분비외과
		기세휘	유방성형, 유방재건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병
		김규성	어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김영호	알레르기비염, 코골이및수면무호흡, 비중격질환, 축농증, 편도질환, 소아이비인후과
		최정식	타액선 내시경술,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후두 및 음성(성대) 질환
임상약리학과 ☎1167	김현지	분만휴가 2019.12.30 ~ 2020.03.28	
	김지원	피타 편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이비인후과,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재활의학과 ☎2480~1	김철우	임상약리/약동분석	
	조상헌	임상약리/약동분석	
정신건강의학과 ☎3880	정한영	해위연수 2019.9.1 ~ 2020.2.29	
	김창환	근골격계통증(오통, 오십견), 말초신경병변	
	김명옥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좌경림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 두경부 통증	
	박찬혁	뇌신경재활, 일반재활	
	이정섭	ADHD 틱장애, 학습주의력언어	
정형외과 ☎2380	배재남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정신장애	
	김혜영	기분장애(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정신질환 조기진단 및 관리, 자살예방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병	
	맹세리	성인, 소아 정신건강	
	문경호	인공관절성형술(고관절, 슬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정형외과 ☎2380	김명구	슬관절(인공관절, 퇴행성관절염, 스포츠손상)	
	강준순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고관절 치환술, 관절염, 중앙, 골다공증	
	조규정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축만증, 골다공증	
정형외과 ☎2380	이동주	상지, 수부, 중앙, 관절염	
	김범수	족부, 족관절, 외상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정형외과 ☎2380	권대규	소아정형, 뇌성마비, 중앙, 외상	
	전윤상	어깨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치환술, 오십견, 회전근개 질환, 어깨 탈구 및 스포츠 손상), 주관절, 슬관절	
	박준성	무릎, 어깨	
직업환경의학과 ☎2861	임중환	환경성질환, 화학물질관리, 직업성호흡기질환, 고엽제	
	박신구	직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보건관리	
	김현철	뇌, 심혈관질환 평가 및 관리,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적합성 평가	
	이상윤	직업병 및 업무관련성 평가	
척추센터 (SCC) ☎2619	정형외과(OSSC)	조규정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축만증, 골다공증
	신경외과 (NSSC)	윤승환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축만증, 척추중앙
		류달성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축만증, 척추중앙
치과 ☎2470	재활의학과(RMSC)	김명옥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오남식	오남식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조현영	구강외과
통증센터 ☎3921	최진호	구강악안면외과, 임플란트 클리닉	
	최지영	교정과	
	김병건	통증치료	
폐암센터 ☎3890	김나은	통증치료	
	백지선	통증치료	
	류정선	폐중앙, 폐결절, 폐암조기검진	
피부과 ☎2230	남해성	폐중앙, 폐결절, 폐암조기검진	
	윤용한	폐중앙	
	김영삼	폐중앙	
핵의학과 ☎3160	최광성	모발, 모발이식, 조각질환	
	신정현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알러지, 백반증, 기타자가면역 피부질환, 여드름, 흉주	
	변지원	여드름, 피부노화, 피부양성종양, 피부미용외과, 피부과 전반적인질환	
혈관외과 ☎2166	외과(GSVC) 흉부외과 (CSVC)	현인영	동위원소치료
		이민경	동위원소치료
혈액종양내과 ☎2199	박근명	혈관이식외과	
	백원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김정택	심장혈관질환, 일반흉부질환	
호흡기내과 ☎2216, 2217	강철웅	심장, 혈관질환	
	이민희	혈액학, 중앙학, 골수이식, 완화의료	
	임주한	혈액학, 중앙학, 완화의료	
흉부외과 ☎2280	조진현	혈액학, 중앙학, 완화의료	
	박지선	혈액학, 중앙학, 완화의료	
	이홍렬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중앙	
	곽승민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중앙	
	류정선	호흡기질환, 폐중앙, 만성폐질환	
	남해성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중앙	
희귀유전 질환센터	김정수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중앙	
	박미하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중환자 의학	
	임준혁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중환자의학	
소아청소년과	권영세	소아신경, 뇌전증	
	이지은	소아내분비, 유전 및 유전성 대사질환	
	김수진	뮤코다당증, 누낭증후군, 프리다-윌리엄스증후군, 안젤만증후군, 터너증후군, 유전성대사질환	
	최석진	말초신경병증,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재활의학과	정한영	해위연수 2019.9.1 ~ 2020.2.29	
	문연숙	세포유전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위암	신용운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김형길	위암, 염증성 장질환
	권계숙	해위연수 2019.9.1~2020.2.29
	고원진	위암, 염증성 장질환
외과	신석환	위암, 위기질성종양
	하윤석	위암, 소화성 궤양, 위기질성종양, 비만수술, 복강경 수술
	이문희	위암, 식도암, 대장암
	임주한	위암, 식도암, 대장암, 기타 고형암
혈액종양내과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김현정	위암, 식도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소화기내과	신용운	대장암, 위암, 역류성 식도염
	김형길	대장암, 위암, 염증성 장질환
	권계숙	해위연수 2019.9.1~2020.2.29
	고원진	대장암, 위암, 위 대장 질환
대장암	최선근	대장암, 직장암, 항문암, 복강경 및 로봇 대장절제술
	정성택	대장암, 직장암, 복강경 대장절제술, 치질 등 대장질환
	이문희	대장암, 위암, 유방암, 부인암
	임주한	대장암, 위암, 육종, 기타 고형암
혈액종양내과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김우철	대장암, 직장암, 폐암, 흉선종
방사선종양학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소화기내과	이진우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진영주	간질환, 간암, 만성 B형, C형 간염
	유정환	간암, 만성간염, 알코올성간질환, 지방간
	안승익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외과	이건영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신우영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임주한	간암, 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항암화학요법, 비뇨기암, 뇌척추종양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간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및 간병리
소화기내과	이돈행	췌장암, 담도암, 췌장염, 담석증, 치료내시경
	정석	췌장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염, 담석질환
	박진석	췌장암, 담도, 췌장질환, 간질환, 치료내시경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외과	이건영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신우영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이문희	췌장암, 담도암, 항암화학요법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췌장암, 소화기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호흡기내과	이홍렬	폐암, 폐결핵,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곽승민	폐암, 폐결핵,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류정선	폐암, 폐결핵, 표적치료, 폐암 조기검진, 늑막염, 면역치료
	남해성	폐암의 진단과 치료, 폐암 맞춤치료, 폐결핵, 폐암 조기검진
흉부외과	윤용한	폐암, 식도암, 흉선암, 종격동질환, 흉강경 수술
	김영삼	폐암, 식도암, 흉선암, 종격동질환, 흉강경 수술
	이문희	폐암, 유방암, 부인암, 위암, 식도암, 대장암, 췌담도암
	조진현	폐암, 흉선암, 혈액암
혈액종양내과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김우철	폐암, 폐전이암, 흉선종,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종양학과	김루시아	폐병리
혈액종양내과	조진현	혈액암,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박지선	혈액암, 혈액질환, 완화의료
	이정심	혈액암, 육종, 유방암, 부인암, 뇌척수종양
	최석진	혈액림프관내계 병리
내분비내과	홍성빈	갑상선암, 부신종양, 갈색세포종
	김소현	갑상선, 내분비, 당뇨
	안성희	갑상선, 부신, 기타 내분비질환
	서다혜	갑상선, 당뇨, 기타 내분비 질환
외과	이진우	갑상선암 및 양성질환, 로봇수술, 구강내시경 수술, 유방 양성질환
	최정석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김지원	갑상선암, 후두암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임주한	갑상선암 및 두경부암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갑상선암, 두경부암, 부인암, 유방암
	현인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종양학의학
핵의학과	이민경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분자영상의학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외과	허민희	유방암, 유방질환	
	이진우	유방양성질환, 유방내분비, 갑상선암 및 양성질환	
	성형외과	기세휘	유방재건, 유방성형, 피부암
	이문희	유방암, 부인암	
유방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김현정	유방암,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이정심	유방암, 부인암, 두경부암	
	병리과	박인서	유방병리
산부인과	김동호	자궁경부암, 난소 종양, 자궁체부암	
	이병익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생식 내분비(불임, 폐경)	
	황성욱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복강경 수술	
	이방현	부인종양학(난소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이외 산부인과 종양)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자궁암, 난소암, 희귀암, 유방암	
	임주한	부인암, 두경부암, 위암, 대장암, 간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이정심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유방암	
비뇨기암	최석진	산부인과병리	
	이택	전립선암, 신장암, 복강경수술	
	강동혁	신장암, 신우요관암, 방광암, 전립선암, 복강경수술	
	이문희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김현정	전립선, 방광암, 신장암, 신우요관암	
	병리과	한지영	비뇨기병리
두경부암	최정석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김지원	구강암, 편도 및 인두암, 후두암, 침샘종양, 경부종양	
	성형외과	기세휘	조직재건, 유방재건, 피부암
	임주한	구강암, 편도 및 인두암, 위암, 식도암	
피부암	조진현	구강암, 편도 및 인두암, 폐암, 혈액암	
	김현정	하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이정심	비인두암, 구인두암, 구강암	
	병리과	박인서	두경부병리
종양스트레스클리닉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재활의학과	김명옥	암재활 - 림프부종
	피부과	변지연	피부암, 혈관종양 및 혈관기형 질환, 피부레이저 클리닉
	최광성	항암제 피부 부작용, 건선, 조갑질환, 탈모, 모발이식	
성형외과	신정현	항암제 피부 부작용, 색소질환, 흉조, 피부병리	
	기세휘	피부암, 유방재건, 유방성형	
	이문희	피부암, 희귀암, 유방암, 부인암	
	임주한	피부암, 혈관종양, 육종, 기타암	
혈액종양내과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이정심	피부암, 혈관종양, 육종	
	병리과	김루시아	병리학
	김은영	뇌종양, 뇌하수체종양, 두개기저부종양, 소아뇌종양	
신경외과	박현선	사이버나이프 - 뇌종양, 뇌전이상, 두경부암, 두개 기저부 종양	
	윤승환	척추종양, 척추 변형 수술,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류달성	척추종양,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임주한	뇌척추종양, 두경부암, 소화기암, 비뇨기암, 희귀암	
혈액종양내과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이정심	뇌종양, 뇌전이상, 척추종양, 육종, 두경부암, 유방암	
	병리과	박인서	병리학
	강준수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정형외과	이동주	골육종, 연골육종, 손 저림, 손가락 통증, 상지 신경 수술	
	권대규	골육종(18세 이하), 족부 족관절 질환	
	임주한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조진현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혈액종양내과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이정심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병리과	주영채	연부조직 병리	

■ 암통합정보교육 프로그램 사전신청 및 문의 (032) 890-1071, 1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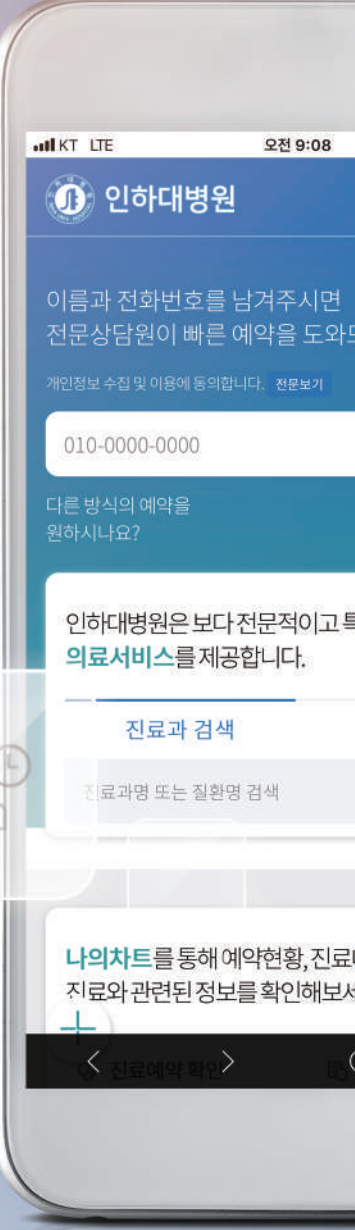
- 강의형 교육: 암 질환 및 치료 중심 강의, 주 1회
대상자 - 암 환자 및 가족, 내원객
- 참여형 교육: 웃음치료, 캘리그래피(손글씨), 미술치료
대상자 - 현재 치료중인 암 환자, 사전 신청 필수
- 참여 프로그램(미술, 캘리그래피) - 작품전시: 12월 16일(월), 지하층 로비

내 손안의 스마트병원

인하대병원 모바일앱

My인하

OPEN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인하대병원 검색

- 진료예약**
어디서든 간편하게 진료예약 가능
- 진료비결제**
대기없이 간편하게 병원비 결제
- 진료대기순서**
대기 순서 알림으로 기다림 없이 진료
- 진료예약조회**
예약한 진료일정을 간편하게 조회 가능
- 내일정**
병원스케줄을 한눈에 확인 가능
- 실손보험청구**
복잡한 신청서류 없이 실손보험 즉시 청구
- 전자처방전달**
종이 처방전 없이 간편하게 전자처방 전달
- 건강수첩**
기본적인 건강관리 (혈압, 혈당, 체질량)

※개선 기능은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인하대병원

INHA UNIV. HOSPITAL